

파란문법 v3.7 (이론편)

破亂文法

破 꺾 파
亂 어지러울 란

박지성 지음

현대청운고등학교

목차

- (음운론) 음운과 음운 체계 ... 1쪽
 - 음운 변동
 -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5쪽
 - 비음화 ... 8쪽
 - 유음화 ... 9쪽
 - 구개음화 ... 12쪽
 - 경음화 ... 15쪽
 - 탈락
 - 자음군 단순화 ... 18쪽
 - ㅎ 탈락 ... 20쪽
 - 그 외의 탈락 ... 21쪽
 - 첨가
 - ㄴ 첨가 ... 23쪽
 -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 24쪽
 - ㄴ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 25쪽
 - 반모음 첨가 ... 26쪽
 - 축약
 - 거센소리되기 ... 27쪽
 - 모음 축약 ... 28쪽
- (형태론) 형태소와 단어
 - 단어의 분류
 - 체언 ... 31쪽
 - 관계언 ... 33쪽
 - 용언 ... 35쪽
 - 수식언 ... 39쪽
 - 독립언 ... 41쪽
 - 단어의 형성
 - 합성어 ... 42쪽
 - 파생어 ... 43쪽
- (통사론)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짜임
 - 문법요소
 - 피동과 사동 ... 44쪽
 - 부정 ... 47쪽
 - 시제와 동작상 ... 49쪽
 - 높임법 ... 50쪽
 - 문장성분
 - 주성분 ... 51쪽
 - 부속성분 ... 53쪽
 - 독립성분 ... 55쪽
 - 문장의 짜임
 - 이어진문장 ... 55쪽
 - 안긴문장 ... 57쪽
- (국어사) 우리말의 옛 모습
 - 중세국어 ... 61쪽
 - 근대국어 ... 67쪽
- (어문규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 70쪽
- 참고 문헌 ... 72쪽
- 수정 이력 및 교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 73쪽

기본

음운 音韻 phoneme

음운은 ㄱ, ㄴ, ㄷ, ㄹ, ㅏ, ㅑ, ㅓ, ㅕ와 같은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¹⁾ 예를 들어 /감자/는 ‘ㄱ’, ‘ㅏ’, ‘ㅓ’, ‘ㅕ’라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ㄱ’이 사라지거나(암자), ‘ㄴ’으로 바뀌게 되면(남자) 뜻 또한 변하게 된다.

즉, 음운은 의미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작은 소리인 것이다. 앞으로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음운이라고 할 것이다.

음운 체계 音韻 體系 system of phonemes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시작부터 도표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물론 제시한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몇 개뿐이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자.

1. 자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ㅂ (ㅍ, ㅃ)	ㄷ (ㅌ, ㅆ)		ㄱ (ㅋ, ㆁ)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이 용어들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배운 것들이다.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암기라고 본다. 특히 조음 방법 중에 비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비음은 코‘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비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의 ‘조음 방법’을 의미한다.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므로 꼭 기억하자. 비음은 ‘방법’이지 ‘위치’가 아니다.

1) 여기서 ‘자음’과 ‘자음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보통 표기된 글자인 ‘자음자’를 ‘자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둘은 분명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겹받침 ㄹ은 ㄹ과 ㄱ을 나란히 쓴 것으로서 ㄹ과 ㄱ은 각각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된다. 반면 ㄱ은 ㄱ자 두 개를 나란히 쓴 것이지만 음운으로서는 ㄱ 전체가 하나로 인정된다. 시험에서 자주 묻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자.

2. 단모음

전후 고저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모음	ㅣ (ɪ)	ㅡ (ɯ)
중모음	ㅐ (ɛ)	ㅑ (ɔ)
저모음	ㅓ	ㅕ

※ 입의 앞은 입술 쪽, 뒤는 목구멍 쪽을 의미한다. 어떤 모음이 전설인지 후설인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 괄호 안의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하여 조음하는 원순모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으~’하고 소리를 내다가 입술만 둥글게 오므려 보라. ‘우~’ 소리가 날 것이다.

우리말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존재한다. 단모음은 이중모음과 대비되는 말로서 발음할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이, 이’, ‘아, 아, 아,’ 하고 발음해보라. 턱과 혀와 입술이 각 모음을 발음할 때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ɪ, ɯ의 경우 단모음으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ɛ와 ɔ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각각 웨[we]와 위[wi]로 발음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고 싶다면 각각 모음 ɛ와 ɔ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술만 둥글게 오므려보라.

이중모음은 위의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한 것이다. 반모음에는 w와 y²⁾가 있다. w가 결합한 이중모음은 ㅘ, ㅙ, ㅚ, ㅛ가 있다. y가 결합한 이중모음은 ㅜ, ㅠ, ㅠ, ㅠ, ㅠ, ㅠ, ㅠ가 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다.

심화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조음기관의 사용 방법에 있다. 자음은 기본적으로 폐에서 올라오는 기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어디를 막더라도 막아서(주로 혀로 막는다) 공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를 좁혀 소리를 만든다. 그래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기류가 장애를 겪는 위치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음은 기류가 별다른 장애를 겪지 않는다. 모음은 성대를 떨면서 구강을 소리통으로 활용하여 왕왕 울리는 것이다. 다만 혀의 높낮이와 앞뒤, 입모양 등으로 울리는 방식을 달리 할 뿐이다. 가장 입을 작게 벌리고 혀도 높이 올리는 모음 ɪ나 ɯ의 경우에도 발음을 해보면 폐에서 기류가 별다른 장애 없이 솔솔 흘러나옴을 알 수 있다.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쯤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모음 ɪ와 반모음 y를 비교해보면 y는 혀가 ɪ보다 더 올라가 거의 경구개 근처까지 접근한다. 그렇다고 혀가 경구개에 닿는 것은 아니다. 닿아서 공기를 막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음의 조음위치가 되는 것이다.

2) j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음성기호로는 j가 맞으나 영미권 알파벳에 익숙한 우리네 현실을 고려하여 y로 표기하였다. jordan이 문화권에 따라 요르단 또는 조단으로 발음되는 것을 안다면 j가 y를 의미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화

○ 음운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은 기본적으로 소리의 단위이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마치 인쇄된 낱자를 음운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쇄된 글자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반짝이는 유리’라고 할 때의 ‘유리’를 살펴보자. 유리는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다섯 개라고 답한 친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정 말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한 ‘없음 표시’이다. 음운과 음성의 차이는 무엇이나? 음성은 실제 인간이 조음기관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물리적 진동 및 음파이고 음운은 그것을 인간이 듣고 추상화하여 인식한 관념적 개념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조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다. 이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발음해보라 하면 각 사람들 수만큼의 서로 다른 ‘음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글쓴이의 [kəjɪnmal]과 아시아 최고의 아티스트, 존경하는 빅뱅 GD의 [gəjɪnmal]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국제음성기호로 바꾸어 기록해보니 정말 그러하다!) 그러나 그 누구의 ‘음성’일지라도, 정확히 발음만 해주면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같은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 글쓴이의 [kəjɪnmal]이나 G.D의 [gəjɪnmal]이나 어쨌든 사람들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들은 같은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음운 체계라는 것은 각 언어마다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개라고 답한 친구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yuri]라고 소리가 나니까 반모음까지 하나의 음운으로 쳐서 총 네 개의 음운으로 분석했을 것이다. 성격이 아주 분석적인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글쓴이와 아주 유사한 문법관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욕은 아니다. 글쓴이도 4개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국어의 음장(소리의 길고 짧음)도 음운에 포함이 되는데(비분절 음운³⁾) 독립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어찌 어엿한 음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대학 음운론 교재에서 반모음을 음운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수능특강에서도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

그러나 세 개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말에서는 언중⁴⁾이 반모음을 하나의 개별 음운으로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ㄱ과 ㅋ을 구분하게 해주는 ‘유기성’과 같은 성질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반모음은 이중모음의 한 요소로서 인식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차로 인해 수능에서 이중모음의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출제한다면 지문이나 <보기>에서 반모음에 관한 관점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반모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운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인식이다.

3) 음운을 음소와 운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음소는 분절 음운, 운소는 비분절 음운을 의미한다. 분절 음운이란 자음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음운이고, 비분절 음운은 국어의 장단음처럼 뜻을 구분하게 하지만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음운을 말한다.

4)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 안의 대중.

기본

교체 交替

음운 교체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비음화
3. 유음화
4. 구개음화
5. 경음화 (된소리되기)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표음화, 평파열음화)

초성
중성
종성

하나의 음절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초성
중성
종성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물/ 은 초성이 ㅁ, 중성이 ㅍ, 종성이 ㄴ인 것이다. 초성과 달리 종성 자리에서는 아무 자음이나 소리 날 수 없다⁵⁾. 대표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음 7개만이 소리 날 수 있다.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 대표 선수 11명만이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자. 나머지 자음들은 표기상으로는 쓰일 수 있어도 실제 발음 시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실제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음운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음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ㄱ - 부엌[부엌], 창밖[창밖]	:	ㅋ, ㆁ → ㄱ
ㄴ		
ㄷ - 갓[갓], 갓[갓], 갓[갓], 갓[갓], 갓[갓]	:	ㅌ, ㅍ, ㅈ, ㅊ, ㅌ → ㄷ
ㄹ		
ㅁ		
ㅂ - 앞[앞]	:	ㅃ → ㅂ
ㅇ		

음절의 끝이라는 제약 때문에 어떤 음운이 ㄴ, ㄹ, ㅁ, ㅇ으로 교체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음운이 ㄴ, ㅁ, ㅇ으로 교체되었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비음화에 의한 교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음운이 ㄹ로 교체되는 경우는 추후에 다룰 유음화뿐이다. 결과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ㄱ, ㄷ, ㅂ 세 자음으로의 교체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끔, 어떤 참고서들은 추후에 다룰 탈락 현상 중 하나인 자음군 단순화 현상까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넣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다루는 문법 전공 서적들이 꽤 있다.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루지 않아왔고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5) 물론 초성에도 제약이 있다. 현대 국어에서 소리가 있는 ㅇ[ŋ]은 초성에 올 수 없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현대국어 초성의 ㅇ은 모두 소리값이 없는 이[∅]으로 간주하면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적 조건이다. 사람이 변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음운이 교체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 1. 단독으로 쓰이거나 단어의 끝에 쓰일 때 : 맛 → [만]
ㅅ → ㅆ

환경 2.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 맛깔스럽다 → [만깔스럽따]
ㅅ → ㅆ

환경 3.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 맛없다 → [마덥따]
ㅅ → ㅆ

환경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발음을 보고 교체 현상이 일어났음을 인지할 수만 있으면 된다. 특히 맛없다[마덥따]의 경우 ①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겪고 ②연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이는 ‘없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⁶⁾

만약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문법적인) 형태소들, 이를테면 조사와 같은 것과 결합한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음이 될 따름이다. ‘맛’ 뒤에 ‘이’, ‘을’, ‘에’를 결합해보면 각각 [마시], [마슬], [마세]로 발음이 되고,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지 않고 연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놀랍게도 ‘맛있다’는 [마딤따]로도, [마싌따]로도 발음이 된다. 복수표준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칙은 [마딤따]가 원칙이다. 언중들이 [마싌따]로 발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추가로 인정된 예외적 발음이다. ‘멋있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심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표준 발음법]⁷⁾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 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꽂]	웃[읏]
웃다[읏 : 따]	있다[읏따]	젓[젇]	빚다[빇따]
꽃[꼇]	쫓다[쫇따]	술[숏]	뺨다[뺏 : 따]
앞[압]	뺏다[뺏따]		

○ 음절의 끝에서 ㅎ은 어떻게 소리 날까?

표준 발음법에서는 대표음과 관련된 제9항에서 ㅎ을 설명하지 않고 제12항을 별도로 만들어 받침 ‘ㅎ’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문법을 배우면서 점차 알게 되겠지만 ㅎ은 워낙 다양한 변동을 겪는 받침이므로 학자들도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ㅎ이 음절 끝에서 어떤 대표음으로 교체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제12항에서는 이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아마 끝소리를 설명하려고 하니 ‘ㅎ’으로 끝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서는 ‘히읇’뿐이고 이마저도 표준발음이 ‘히읇이[히으시]’로 나므로 실질적인 기저형은 /히읇/이라고 보여, 제대로 된 용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만 제18항 비음화와 관련된 조항을 통해 받침 ㅎ이 어떤 대표음으로 교체되는지 간접적으로는 제시하고 있다. 교재 10쪽 표준발음법 제18항을 보면 비음 ㄴ이나 ㅁ 앞에서 대표음 ㄱ, ㄷ, ㅂ이 각각 ㅇ, ㄴ, ㅁ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는 받침 자음들의 목록에 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ㅎ은 ㄴ이나 ㅁ 앞에서 ㄷ으로 먼저 교체되고, 이후 비음화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7) 이하 모든 [표준 발음법]에 관한 자료는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것을 참조하였음.

기본

2. 비음화

우리가 보통 OO화라고 하면 OO이 아닌 어떤 것이 OO이 될 때 OO화라고 한다. 즉,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우리말의 비음은 ㄴ, ㅁ, ㅇ이니 없었던 ㄴ, ㅁ, ㅇ이 나타나면 일단 비음화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비음이 무엇인지 되짚어보자. 비음은 조음방법일까 조음위치일까? 비음은 조음방법이라고 앞서 언급하였다. 조음위치는 쉽게 말하면 혀가 닿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⁸⁾ 독자들은 코에 혀가 닿는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즉 코는 조음 위치가 될 수 없는 기관이다. 비음은 비강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비강을 이용한다는 것은 목젓을 내려 구강으로 가는 공기의 길을 막고 폐에서 올라오는 기류를 비강으로 밀어 넣어 한껏 울리게 한 후 콧구멍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결국 비음화라는 것은 조음위치는 그대로 두고(양순, 치조, 연구개) 조음방법만 비음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보자.

교체 전		교체 후		
① 드	→	ㄴ	:	걷는다 → [진는다] 끝말 → [끈말] ⁹⁾
치조 파열음		치조 비음		
② 브	→	ㅁ	:	걸눈 → [검눈] 입문반 → [임문반]
양순 파열음		양순 비음		
③ 그	→	ㅇ	:	먹는가 → [멍는가] 목마른 → [몽마른]
연구개 파열음		연구개 비음		

교체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 따위의 조음위치는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음방법은 모두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교체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화의 조건은 파열음(ㄱ, ㄷ, ㅂ) 뒤에 비음(ㄴ, ㅁ)이 결합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의 ‘걷는다’를 살펴보면 ‘걷는’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만(ㄷ + ㄴ) ‘는다’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ㄴ + ㄷ). 이는 ‘입문반’도 마찬가지이며 ‘먹는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음이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8) ㅎ은 제외. ㅎ은 모든 자음 중 가장 특별하다.
9) /끝말/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말 → (비음화) [끈말]

(유음의) 비음화

같은 비음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변화 원인과 양상이 전혀 다른 비음화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유음의 비음화 현상인데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가면 큰 문제는 없다.

이 현상은 본질적으로 ㄹ이 가진 특성에 기인한다. ㄹ은 본디 성격이 예민한 자음이라 자기 앞에 다른 자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뒤에 오는 것도 문제가 됨)¹⁰⁾ 즉, ㄹ이 초성일 때, 그 앞에 ㄹ 이외의 받침이 나타나는 경우 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눈 뜨고 볼 수 없다면?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자신이 교체되든지, 상대를 교체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ㄹ은 성질만 고약할 뿐 힘은 약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ㄹ은 ㄴ으로 교체된다. (ㄴ이 ㄹ과 조음위치도 같고, 같은 울림소리라서 선택되는 것 같다) 다음의 양상을 살펴보자.

ㄹ ⊕ ㄴ
역류 ⊕ 역뉴 → [영뉴]
감리 ⊕ [감니]
입론 ⊕ 입논 → [임논]
정리 ⊕ [정니]

위에서 ⊕에 해당하는 교체 현상이 바로 유음의 비음화 현상이다. 앞에 ㄴ, ㄹ 이외의 자음이 나타나면 ㄹ은 즉각 ㄴ으로 교체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유음화

위에서 말한 것처럼 ㄹ은 아주 특별한 자음이다. 이 ㄹ을 유일하게 대접해주는 자음이 ㄴ이다. ㄴ은 ㄹ과 조음위치가 같고 조음방법만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같은 울림소리라는 점에서 서로 가장 가까운 자음이다. 그래서 성질 더러운 ㄹ을 위해 ㄴ이 ㄹ로 교체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유음의 비음화를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ㄹ이 교체를 겪는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경우가 바로 ㄴ을 만나서 ㄴ이 ㄹ로 교체되고 ㄹ은 멀쩡히 발음되는 지금 이 상황을 뜻한다.

ㄴ ㄹ → ㄹ ㄹ ㄹ ㄴ → ㄹ ㄹ
날로 → [날로] 칼날 → [칼랄]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모두 ㄹ로 교체된다.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ㄹ과 ㄴ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음화는 앞의 유음의 비음화와 세트로 묶어 이해하는 것이 좋다.

10) ㄹ의 뒤에 ㄴ, ㄷ, ㅂ, ㅅ, ㅈ 등과 같은 자음이 초성으로 오면 바늘+질 → /바느질/처럼 ㄹ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ㄹ탈락은 용언의 활용이나 복합어의 형성과정에서 모두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탈락 단원에서 학습하도록 하자.

심화

○ 비음화, 유음화 관련 [표준 발음법]

(편집자 주: 제18항은 비음화, 제19항은 유음의 비음화, 제20항은 유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ㄹ, ㄷ,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움만[키움만]
뭉뭉이[몽목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 : 는]	웃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죤는]	꽃망울[곤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 : 는]	옴는[음는]	없는[엄 : 는]	값매다[감매다]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만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¹¹⁾

담력[담 : 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항로[항 : 노]
대통령[대 : 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¹²⁾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낙→협낙]
십리[십니→심니]		

11) 어떤 책에서는 유음의 비음화를 (자음)동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음의 비음화를 규정 한 표준 발음법 제19항이 ‘제5장 음의 동화’ 파트에 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상 음의 동화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화 현상이라고 부르기에 무리가 따른다. 특히 [붙임]에 나타난 파열음 뒤에서 ㄹ이 비음화되는 사례들은 도저히 동화라고 보기 어렵다. ㄱ이나 ㅂ의 어떤 점을 닮아갔기에 ㄹ이 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음운론 관련 서적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부분은 표준 발음법 체계 상의 문제로 보여진다. 따라서 수능에서 이를 동화냐 아니냐로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될 수가 없다.

12) ㄴ 앞에 ㄱ이나 ㅂ이 올 경우, ㄹ의 비음화가 파열음의 비음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한 부분이다. 시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유의하자.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괄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ㅍ’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¹³⁾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¹⁴⁾

감기[감 : 기] (×[강 : 기])	웃감[온감] (×[옥감])
있고[일꼬] (×[익꼬])	꽃길[꼇길] (×[꼭길])
젓먹이[전머기] (×[점머기])	문범[문뵤] (×[뵤뵤])
꽃밭[꼇뵤] (×[꼭뵤])	

위 규정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단어와 그 발음을 보였을 때, 위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입원료[이뵤노]’에서 ㄹ이 ㄴ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제19항(유음의 비음화)에 의한 교체인지 제20항(유음화)의 예외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음의 비음화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규칙적 성격을 띠지만(배열의 제약) 제20항 유음화의 예외 현상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현상으로 음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13) 유음화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잘 살펴보면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만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4) 잘 살펴보면 제21항의 예시들은 조음위치까지 동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구개음화를 제외하면, 조음위치를 바꾸는 교체는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러한 발음은 음운의 성격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없고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어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

4. 구개음화

구개음은 조음위치를 이르는 말이다. 단단한 윗니를 지나 매끈한 윗잇몸을 넘어가면, 뜨거운 라면을 급하게 먹었을 때 홀랑 벗겨지는 그 부위가 나타난다. 마치 미술 시간에 쓰는 팔레트와 같은 그 부위, 경구개이다. 여기서 소리 나는 음이 ㅈ, ㅊ, ㅉ이다.¹⁵⁾

구개음화는 비음화나 유음화와 달리 조음위치로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는 구개음화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이 조음위치의 변화에 있다는 뜻이다. 즉 비음화나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두고 조음방법이 변화하는 것인데 반해 구개음화는 조음위치가 변화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 구개음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체 전	교체 후	
① 드	→ ㅌ	: 만이 → [마지] 가을걷이 → [가을거지]
치조 파열음	경구개 파찰음	
② 트	→ ㅊ	: 같이 → [가치] 쇠붙이 → [쇠부치]
치조 파열음	경구개 파찰음	
②-1 드+ㅎ	→ ㅊ	: 받히다 ¹⁶⁾ → 바티다 → [바치다]
	경구개 파찰음	

먼저, 교체 전과 후를 살펴보면 치조음이 구개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개음화라고 명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개음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①, ②의 사례를 잘 살펴보면 발음들이 모두 [지], [치] 등으로 구개음과 ㅣ모음이 연달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개음화는 앞말이 ㄷ이나 ㅌ으로 끝나고 뒤에 ‘이’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②-1의 경우 앞말이 ㄷ으로 끝났고 뒤에 ‘-히-’가 결합하였다. 이 경우 먼저 ㄷ이 ㅎ과 축약되어 ㅊ이 되고, 뒤이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시험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ㄷ이나 ㅌ은 ㅣ모음만 만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다음을 살펴보자

- ㉠ 곁**잎** [건닙]
- ㉡ 받**일** [반닐]
- ㉢ **느티**나무 [느티나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과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ㅌ 뒤에 결합한 형태소가 ‘잎’이나 ‘일’과 같은 실질형태소¹⁷⁾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 ㉢에서 결합한 ‘-이’는 모두 형식형태소이다. ㉢의 경우 아예 형태소 결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느티’가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결합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종합하면, 구개음화는 앞말이 ㄷ이나 ㅌ으로 끝나고 뒤에 형식형태소 ‘이’, 또는 ‘히’가 결합할 때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15) 쓸데없는 지식이지만 구개를 뜻하는 영어가 palate, 구개음을 뜻하는 영어가 palatal이다. 미술 도구 팔레트는 palette.

16) 받히다 : 떠받음을 당하다(발다의 피동사). ㉠소에게 받히다.

17) 형태소의 뜻과 종류는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 통시적 구개음화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

역사적으로 음운이 바뀌어, 지금은 구개음화된 형태로 인식하는 단어들이 꽤 있다. 다음은 「속미인곡」의 처음 부분이다.

네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는고

이 작품을 현대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고?

중세의 ‘더’는 구개음화를 겪어 현대의 ‘저’가 되었다. ‘턴’도 ‘천’이 되었다. 오늘날의 구개음화와 비교해보면 형식형태소와의 결합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세에 ‘디, 더, 티, 터’였던 것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모두 변하여 오늘날 ‘지, 저, 치, 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 왜 근대국어 시기에 통시적 구개음화가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세국어에는 ‘구개음’이 없었다(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 설음 ㄷ, ㅌ이 ‘구개음’화 하고 싶어도, 변화할 ‘구개음’ 자체가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가는 더 각시’로 발음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ㅈ, ㅊ은 ㅅ과 함께 치음이었다. 이들 ㅈ, ㅊ이 치음에서 구개음으로 옮겨 발음되는 자음체계의 변화는 근대국어 시기에야 나타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개음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느티나무, 잔디, 어디 등은 왜 아직도 구개음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일까? 이들은 분명 중세에도 존재했던 단어들이는데 어찌 옛 모습 그대로 ㄷ, ㅌ이 살아있는 것일까?

이들이 근대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광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구개음화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개음화의 조건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ㅁ모음 앞에 ㄷ, ㅌ이 오는 것이다. 바로 이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세국어 시기에 이들은 각각 ‘느티’, ‘잔디’, ‘어디’로서 ㅁ모음이 아닌 ㄴ모음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중세국어 자료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본

5. 경음화 (된소리되기)

경음화는 다른 음운 변동과 달리 인식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표기에 없던 쌍자음이 발음에서 나타나면 거의 경음화라고 보면 된다. 대표음화나 비음화만 해도 뒤이어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변화의 흔적이 덮이는데, 경음화의 결과물인 ㅍ, ㅌ, ㅍ, ㅆ, ㅆ는 더 이상 변동을 겪지 않는다. 예를 살펴보자.

① 북극 → [북**ㅍ**] 멧쟁이 → [멧**ㅌ**이] 급소 → [급**ㅍ**] 입법 → [입**ㅍ**] 입대 → [입**ㅌ**]
 ㄱ㉠ → ㄱ㉡ (ㅅ→ㄷ)㉢ → ㄷ㉣ ㅂ㉤ → ㅂ㉥ ㅂ㉦ → ㅂ㉧ ㅂ㉨ → ㅂ㉩

①-1 읽고 → [일**ㅍ**]
 ㄹㄱ㉠ → ㄹㄱ㉡

①-2 넓고 → [널**ㅍ**] 떨지 → [떨**ㅌ**] 할다 → [할**ㅌ**] 훑소 → [훑**ㅍ**]
 ㄹㄹ㉠ → ㄹㅍ㉡ ㄹㅌ㉢ → ㄹㅌ㉣

② (사위로) 삼다 → [삼**ㅌ**] (아기를 품에) 안다 → [안**ㅌ**]
 (빨래를) 삶다 → [삼**ㅌ**] (자리에) 앉다 → [안**ㅌ**]

보통 경음화라고 하면 ①을 의미한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오는 초성 ㄱ, ㄷ, ㅂ, ㅅ, ㅈ이 각각 ㅍ, ㅌ, ㅍ, ㅆ, ㅆ로 교체되는 것인데 워낙 쉽고 직관적인 것이어서 중학교 때 배운 것 이지만 잘 기억날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①-1과 같이 살짝 헷갈리는 사례를 출제한다. 읽고[일ㅍ]는 자칫 축약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ㅍ의 모양이 ㄱ과 ㄱ이 축약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이다. 축약을 통한 경음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교체다. 여기서는 ‘읽고’의 받침 ㄱ이 탈락하고 ‘-고’는 [-ㅍ]로 교체된다.²⁰⁾

①-2에서는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 뒤에서의 경음화에 대해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ㄹ이 살아남고 나머지 자음이 탈락하고 있는데, 이 탈락하는 자음 ㅂ, ㅌ이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교체시키는 원인이 된다.

②에서는 용언 어간이 ㄴ(ㄴㅈ)이나 ㅁ(ㄹㅁ)으로 끝나는 경우 뒤에 오는 어미를 된소리로 교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명사와 같은 체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아주 신비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간과 쓸개’라고 할 때 [간과]라고 하지 [간ㅌ]라고는 하지 않는다. ‘얹과 깨달음’도 [얹과] 깨달음이지 [얹ㅌ]라고 하지는 않는다.²¹⁾ 된소리되기 중에는 이렇게 음운론적 조건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용언인지 아닌지 등 개별 어휘의 성격을 고려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

20) 겹받침 ㄹㄱ으로 끝난 용언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받침 ㄱ을 탈락시키고 어미의 ㄱ을 된소리로 교체하여 발음한다. 읽고[일ㅍ], 읽게[일ㅌ], 읽기[일ㅌ], 맑고[말ㅍ], 맑게[말ㅌ]
 21) ‘얹’은 용언 어간이었던 어근 ‘알-’에 명사화 접미사 ‘-ㅁ’이 결합한 명사이다.

제27항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토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꺄]	할밖에[할빠꺄]	할세라[할쩌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할진대[할찐대]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재주[손쩌주]	길-가[길꺄]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 : 꺄]
술-잔[술짚]	바람-결[바람꺄]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뺑]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꺄]
초승-달[초승딸]	등-불[등뺑]	창-살[창쌀]
강-줄기[강꺄기]		

○ 제28항 사이시옷 현상에 의한 경음화

제28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알려진 경음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이시옷 현상은 그 원인이 불명확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불’과 ‘고기’가 만나면 [불고기]가 되지만 ‘물’과 ‘고기’가 결합하면 [물고기]가 된다. 같은 명사이고 같은 르로 끝이 났는데 왜 ‘불’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지 못하고 ‘물’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는지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없다. 심지어 ‘민물고기[민물꼬기]’ ↔ ‘민물송어[민물송어]’와 같이 의미적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현상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중세 때 무정물의 관형격 조사를 ㅅ으로 표기했다는 것, ㅅ의 경우 초성에 내려쓸 수 있었다는 전통을 고려하면 중세에는 ‘물ㅅ고기’(물의 고기) 또는 ‘물꼬기’였던 것이 오늘날은 어법에 맞게 쓰다 보니 물고기[물꼬기]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와 같은 교체 현상은 그 구체적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게 된다. 단순 교체라고 한다면 설명은 간단해진다. 물고기[물꼬기]의 경우 ㄱ이 ㅅ으로 교체, 끝이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보자면, 물 ㅅ 고기 → 물 ㄷ 고기 → 물 ㄷ 꼬기 → [물 ㅂ꼬기]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수능에서 이러한 사례의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묻지는 않는다(그래서 주로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출제한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고기[물꼬기]에서 된소리로의 교체가 나타나고 있으나 ①그 원인이 일반적인 경음화와 다르고 ②그것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현상은 뒤에 다룰 ‘음운 첨가’와도 관련이 있으니 그때 제대로 살펴보자.

기본

탈락 脫落

음운 탈락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자음군 단순화 2. ㅎ 탈락 3. ㄹ 탈락 4. ㅡ 탈락 5. ㅏ/ㅓ 탈락

1. 자음군群²⁵⁾ 단순화

오늘날 우리말에서는 초성이든 종성이든 두 개 이상의 자음(자음군)이 연속적으로 소리 날 수 없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상으로는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발음 과정에서 **탈락**(단순화)하게 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① **몫** → [목] **샷** → [삭]
 ㄱ~~ㅅ~~ → ㄱ ㄱ~~ㅅ~~ → ㄱ

② **안다** → [안따] **안는** → [안는]
 ㄴ~~ㅅ~~ → ㄴ ㄴ~~ㅎ~~ → ㄴ

③ **닭** → [닥] **밭다** → [박따]
 ㄷ~~ㄱ~~ → ㄷ ㄷ~~ㄱ~~ → ㄷ

주의)²⁷⁾ **밭게** → [밭게] **밭고** → [밭꼬]
 ㄷ~~ㄱ~~ → ㄷ ㄷ~~ㄱ~~ → ㄷ

얹 → [암] **살다** → [삼따]
 ㄹ~~ㅁ~~ → ㄹ ㄹ~~ㅁ~~ → ㄹ

여덟 → [여덜] **넓다** → [널따]
 ㄹ~~ㅍ~~ → ㄹ ㄹ~~ㅍ~~ → ㄹ

주의)²⁸⁾ **넓적하다** → [넙쩌카다]
 ㄹ~~ㅍ~~ → ㅍ

외곶 → [외골]
 ㄹ~~ㅅ~~ → ㄹ

할다 → [할따] **알는** → [알른]
 ㄹ~~ㅌ~~ → ㄹ ㄹ~~ㅎ~~ → ㄹ

읷다 → [읍따]
 ㄹ~~ㅍ~~ → ㅍ²⁹⁾

④ **값** → [갑] **엷다** → [엷따]
 ㅂ~~ㅅ~~ → ㅂ ㅂ~~ㅅ~~ → ㅂ

25) 群 : 무리 [군]. 따라서 자음군은 자음들의 떼.

26) 반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초성에서 자음군이 발음될 수 있었다. ex) '꿈, 뻐'

27) 용언의 어간이 ㄹㄱ으로 끝나는 경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끝의 ㄱ이 탈락한다.

28) 용언 '넓-다'의 경우, '넓-'을 어근으로 하는 일부 복합어에서 예외적으로 어간 말의 ㄹ이 탈락한다.

29)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로 남은 ㅍ이 ㅂ으로 교체를 겪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심화

○ 자음군 단순화 관련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ㄷ’, ‘ㄹ’, ‘ㅂ’, ‘ㄸ’, ‘ㅃ’, ‘ㅆ’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³⁰⁾
넋다[넉따]	외곶[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 : 따]			

다만, ‘뱌-’은 자음 앞에서 [뱌]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넉]으로 발음한다.

(1)	뱌다[뱌 : 따]	뱌소[뱌 : 쏘]	뱌지[뱌 : 찌]
	뱌는[뱌 : 는 → 뱌 : 는]	뱌게[뱌 : 께]	뱌고[뱌 : 꼬]
(2)	넋-죽하다[넉죽하다]		넋-등글다[넉등글다]

제11항 겹받침 ‘ㄹ’, ‘ㅃ’, ‘ㅆ’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과]	맑다[막따]	늑지[늑찌]
삼[삼 :]	젊다[점 : 따]	옴고[옴꼬]	옴다[옴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궤]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	--------	----------

○ 용언 ‘넋다[넉따]’와 관련된 예외적 발음

표준발음법에서 제시한 단어인 넋죽하다[넉죽하다], 넋등글다[넉등글다] 외에도 예외적인 발음이 더 있다.

넋죽넋죽[넉죽넉죽], 넋적하다[넉쩌카다], 넋적넋적³¹⁾[넉쩍넉쩍], 넋죽이[넉죽기]
 넋다듬이[넉따드미], 넋미역[넉미역], 넋뻘죽하다[넉뻘죽하다], 넋살문[넉살문]

위 사례들은 ‘넋-’ 뒤에 ㅈ, ㄷ, ㅁ, ㅂ, ㅅ으로 시작하는 말이 합쳐서 어간을 이루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ㅂ 중 ㉡이 탈락하고 ㅂ이 남는 사례들이다. 반면에 어간 ‘넋-’에 ㅈ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각각 넋지[넉찌], 넋디넋다[넉띠넉따]로 ㉢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여덟/은 [여덜]로 소리가 나는데, 이로 인해 뒤에 조사 /과/나 /도/와 결합하더라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각각 [여덜과]와 [여덜도]로 발음된다. 표준발음법 제2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ㄹㅂ겹받침 뒤의 경음화 조건은 ‘ㄹㅂ’이 ‘ㅂ’으로 소리 나는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어 ‘ㄹ’로 소리 나는 ‘여덟’은 제외된다. 다만, 제25항의 /핥다/가 [할따]로 소리 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음군 단순화 이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했었는데, 이를 그대로 /여덟도/에 적용하면 [여덜또]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25항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여덟도’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환경이므로 형태론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즉,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등 음운 규칙은 그 적용 순서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1) 여럿이 다 넋적한 모양. ex) 떡을 넋적넋적 자르다.

기본

2. ㅎ 탈락

용언 어간 끝의 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예외 없이 탈락한다. 이는 어간의 끝이 겹받침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① **졸으면** → [조으면] **달아서** → [다아서]
 ㉠ → ∅ ㉠ → ∅
- ② **앞으면** → [아느면] **맡아서** → [마나서] **싫으면** → [시르면]
 ㄴ㉠ → ㄴ∅ ㄴ㉠ → ㄴ∅ ㄹ㉠ → ㄹ∅
- ③ **놓이다** → [노이다] **많이** → [마니] **끓이다** → [끄리다]
 ㉠ → ∅ ㄴ㉠ → ㄴ∅ ㄹ㉠ → ㄹ∅

①에서는 어간 끝 자음으로 ㅎ이 홀로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 ㅎ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②에서는 어간 끝 자음으로 각각 ㄴㅎ과 ㄹㅎ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 ③에서는 어근으로서의 어간 끝 자음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에도 ㅎ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①은 다른 현상과 혼동할 만한 것이 없으나 ②, ③의 경우 ㅎ이 겹받침의 일부인 케이스가 있어 자칫 자음군 단순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음군 단순화와는 원인과 양상 및 결합 환경도 다르다. 다음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고 넘어가자.

	ㅎ 탈락 (②, ③)	자음군 단순화
결합 환경	어간 끝의 ㅎ + 모음 어미 또는 접사	겹받침 + 자음 or 단어의 끝
사례	싫 + 어 [시러]	밖 + 다 [박따]
원인	ㅎ의 음운적 특성	우리말의 구조적 제약 (자음은 최대 2개까지만 연속 가능)
대조군 비교	다른 자음은 모음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탈락하지 않음(막+아[마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음(밖+아[발가])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에서는 자음이 소리 날 수 있는데, 그 개수가 각각 하나씩만 가능하다. 즉 종성과 초성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연속적으로 소리 날 수 있는데, 형태소상으로 세 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경우, 실제로 발음될 때에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한 현상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이다.

②, ③의 ㅎ 탈락은 위의 자음군 단순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뒤에 모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음이 충분히 발음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아서[마나서]는 많+아서[만하서]라고도 발음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ㅎ이 탈락했으므로 이는 ㅎ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초성과 종성 자리를 의자로, 자음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의자가 두 개인데 사람이 세 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앉지 못했다면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의자가 부족한 구조가 원인인 것이다.

3. ㄹ 탈락

용언 어간 끝의 자음 ㄹ은 ㄴ, ㄹ,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① 살-니 → 사니 살-냐 → 사냐 살-ㄴ → 산
 ㉠-니 → ∅니 ㉠-냐 → ∅냐 ㉠-ㄴ → ∅ㄴ
- ② 살-ㄹ → 살 살-ㄹ수록 → 살수록
 ㉠-ㄹ → ∅ㄹ ㉠-ㄹ수록 → ∅ㄹ수록
- ③ 살-ㅂ니다 → 삽니다
 ㉠-ㅂ니다 → ∅ㅂ니다
- ④ 살-시-오 → 사시오
 ㉠-시-오 → ∅시오

위와 유사하게 단어가 합성 및 파생될 때 어근 끝의 ㄹ이 종종 탈락하기도 한다.

- ① 활+살 → 화살 말+소 → 마소 딸-님 → 따님
 ㉠+살 → ∅살 ㉠+소 → ∅소 ㉠-님 → ∅님

ㄹ탈락은 자음군 단순화나 ㅎ탈락과 달리 표기에 음운변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음운 변동은 표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발음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ㄹ탈락과 ㅡ탈락, ㅏ/ㅑ탈락은 표기에 이미 이러한 변동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저 이런 변동이 있다고만 알아 두자.

4. ㅡ 탈락

일반적으로 용언 어간 끝의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 ① 쓰-어 → 써 담그-아 → 담가 슬프-어 → 슬퍼
 쓰㉠-기 → 쓰기 ㉠-가 → 가 ㅍ㉠-기 → ㅍ기
- ② 부르-어 → 불러 자르-아 → 잘라
 ㉠-기 → ㉠기 ㉠-가 → ㉠가

ㅡ탈락은 ㅡ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대부분이 겪는 현상이다. ㅡ가 탈락하고 나면 ㅡ 앞에 있던 자음이 뒤의 어미와 결합하여 써, 가, 퍼와 같이 표기된다(①). 그러나 몇몇 용언은 이러한 규칙에서 어긋나 ②와 같이 불규칙한 활용 형태를 보인다. 이처럼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이는 활용형을 통틀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②와 같은 사례를 ‘ㄹ-불규칙’이라 한다. 불규칙 용언은 단어-품사 단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본

첨가 添加

음운 첨가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초성애) ㄴ첨가 2. (종성애) +ㄴ소리 3. +ㄴㄴ소리 4. 반모음 첨가

1. ㄴ첨가

당신은 금용을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가? [그똥]으로 발음하고 있는가? 아니면 [금똥]으로 발음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든 틀린 발음은 아니다. [그똥]과 [금똥]은 모두 표준발음이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는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자는 음운 변동 없이 연음하여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음운론적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첨가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 첨가하지 않고 발음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굳이 음운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어떤 단어가 발음될 때 첨가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 발음을 암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모를까 발음을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표준발음을 통해 첨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밖에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힐 수만 있으면 된다. 인간의 언어 현상에 대한 문법적 분석,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첨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성에서 일어나는 ㄴ첨가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ㄴ이 첨가되는 양상을 탐구해보자.

- ① 식용+유 → [시공^ㄴ유]
- ② 막+일 → 막닐 → [망^ㄴ닐] 영업+용 → 영업농 → [영^ㄴ업농]
- ③ 불+여우 → 불녀우 → [불^ㄴ려우] 발+야구 → 발냐구 → [발^ㄴ랴구]

①의 경우 ㄴ이 첨가된 후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순수한 첨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의 경우 ㄴ이 첨가된 이후 앞 자음이 비음화를 겪고 있는 사례들이다. ㄱ과 ㅂ이 각각 ㅇ과 ㅁ으로 교체된 것은 모두 첨가된 ㄴ에 의한 것이다.

③의 경우 ㄴ이 첨가된 이후 ㄴ이 유음화를 겪고 있는 사례들이다. 앞말의 받침이 ㄹ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③과 같이 유음화로 첨가가 가려지는 경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ㄴ이 첨가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심화

○ ㄴ첨가 관련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삿-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꼴닙]	내복-약[내 : 봉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캐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옛[콩녘]	담-요[담 : 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업뇽]	식용-유[시공뉴]	백분-율[백뽀닐]	밤-옷[밤 : 뇨]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 : 녘/거 : 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용[금녕/그뽀]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 : 릴]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옛[물렘]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녀섯]	3 연대[삼년대]
먹은 옛[머근녘]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섯]
1 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렘]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송 : 베힐]	등-용문[등용문]
-----------	-----------	--------------	-----------

4. 반모음 첨가 - (or 이중모음으로의 교체)

하나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ㅑ는 반모음y와 단모음ㅏ의 결합, ㅕ는 반모음y와 단모음ㄱ의 결합, ㅖ는 반모음w와 단모음ㅏ의 결합, ㅞ는 반모음w와 단모음ㄱ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한다면, 이중모음은 음운의 개수가 2개인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반면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중모음의 한 성분으로 간주한다면,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사례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 달라진다.

	[원칙/허용]		[원칙/허용]		[원칙 / 허용]
① 피-어	→ [피어/피어]	되-어	→ [되어/되어]	아니-오	→ [아니오/아니오]
pi-ə	→ piyə	tö-ə	→ töyə	ani-o	→ aniyo

①은 표준 발음법의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때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음운의 첨가(반모음 첨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반모음을 이중모음의 한 요소로 본다면 교체 현상(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교체)으로 볼 수도 있다.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월 4월 등 교육청 학력평가에서는 과감히 다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반모음의 첨가’나 ‘반모음으로의 교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간주한다는 전제를 <보기>를 통해 제시하고, <보기>에 제시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선택지에서 찾아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모음의 위상 문제는 다음에 다룰 축약에서도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

축약 縮約

음운 축약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거센소리되기 2. 모음 축약

1.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ㅅ은 ㅎ과 만나면 하나의 거센소리로 줄어든다.

① 국화 → [구**꽂**] 읽히다 → [일**킷**다] 낱고 → [나**코**] 닭하고 → [다**카**고]
 ㄱㅎ → **꺨** ㄷㅎ → **ㄷ꺨** ㅎㄱ → **꺨** ㄷㅎ → **꺨**

② 깨끗하다 → [깨**끄**타다] 술하다 → [수**타**다] 많다 → [만**타**]
 (ㅅ→)ㄷㅎ → **ㅌ** (ㅌ→)ㄷㅎ → **ㅌ** ㄴㅎㄷ → **ㄴㅌ**

③ 굽히다 → [구**피**다] 넓히다 → [널**피**다] 잡화 → [자**ㅍ**]
 ㅂㅎ → **ㅍ** ㄹㅂㅎ → **ㄹㅍ** ㅂㅎ → **ㅍ**

④ 젓히다 → [저**치**다] 종지요 → [조**치**요]
 ㅅㅎ → **ㅆ** ㅎㅅ → **ㅆ**

위의 사례를 통해 ㅎ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ㄱ, ㄷ, ㅂ, ㅅ과 만나기만 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센소리되기는 다른 음운 변동에 의해 덮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표기에 없었던 거센소리가 발음에서 나타났다면 축약 현상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구개음화로 인해 ㅌ이 ㅊ으로 교체되는 사례에서도 표기에 없었던 거센소리-ㅊ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또한 ②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이후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험에서 그 과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순서를 포함하여 용어까지 명확하게 학습했으면 한다.

그런데 ①의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ㄱㄱㅎ의 연속인데도 /읽히고/는 자음군 단순화 이전에 축약이 일어나 탈락 없이 [일킷고]로 발음되는데, /닭하고/의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 ㄷ이 탈락하고 ㄱ이 남은 상태에서 축약이 일어나 [다카고]로 발음되고 있다. 이는 형태론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 /닭하고/는 명사인 ‘닭’에 조사인 ‘하고’가 결합한 /단어+단어/ 환경이지만, /읽-히-고/는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써 어근 ‘읽-’에 접사 ‘-히-’가 결합한 단어 /(어근- + -접사-) + -어미/의 어간 내부 환경으로서 형태론적 조건이 상이하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 현상의 순서는 한 단어의 내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2. 모음 축약 (or 음절 축약)

① 아이 → 애 보이-어 → 뵈어 누이-어 → 뉘어
 ai → e poi-ə → pöə nui-ə → nüə

② 오-아라 → 와라 두-어라 → 뒤라 보-아요 → 봐요
 o-ara → wara tu-əra → twəra po-ayo → pwayo

③ 버티-어 → 버텨 다니-어 → 다녀
 pəti-ə → pətyə tani-ə → tanyə

①은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센소리 되기와 같은 수준의 축약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이’가 ‘애’로 축약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도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이-어’가 ‘뵈어’로 줄어드는 것도 과거에는 이중모음이었던 니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단모음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축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래는 ③과 같은 ‘반모음으로의 교체’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의해 결과적으로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게다가 표기에 변동결과가 뻔히 반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능에서 이를 문제로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②와 ③은 각각 단모음이 반모음w와 반모음y로 바뀌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만약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간주한다면(수능특강처럼) 이는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반모음을 이중모음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이는 단모음 2개가 이중모음 1개로 줄어드는 음운 축약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시험에 출제하려 한다면 앞서 다룬 ‘반모음 첨가’와 마찬가지로 ‘반모음으로의 교체’와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기> 박스를 통해 반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밝힌 후 출제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겉으로 드러난 표기만으로는 어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변동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체감 난도는 상승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②와 ③을 음절 축약이라고 하여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음절 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운 변동에서 다루는 것은 ‘음운’의 변동이지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음절이 축약되는 것을 음운 변동에서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국어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축약 현상은 거센소리되기 하나뿐이다.

형태소形態素³³⁾와 단어單語 morpheme, word

1. 형태소의 정의

‘민물고기’라는 말은 ‘민물’과 ‘고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민물’은 다시 ‘민-’과 ‘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물’을 더 쪼개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한 음운들(ㅁ, ㅍ, ㄹ)만이 남게 되는데 이럴 경우 ‘물’은 하나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형태소는 최소의 유의미한 문법 단위(minimal meaningful unit)이기 때문이다.

2. 형태소의 분류

문장에서의 자립성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류하면 ‘물’과 같이 단독으로 문장에 설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민-’과 같이 홀로 설 수 없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의미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류하면 ‘고기’와 같이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와 ‘먹이다’에서 ‘-이-’나 ‘입히다’에서 ‘-히-’와 같이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민-’은 비록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휘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그리하여 실질/형식 형태소를 다른 말로 어휘/문법(lexical/grammatical) 형태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물고기가 바다로 갔다’라는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물	고기	가	바다	로	가-	-았-	-다
실질/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자립/의존	자립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형태소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자어이다. ‘동화’와 같은 한자어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한자는 본디 제 각각 뜻을 지닌 형태소이므로 모두 실질 형태소로 처리하면 좋을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동’이나 ‘화’를 자립적으로 문장에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한자는 의존 형태소로 처리한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형태소 분석에서 한자어를 다루지 않는다. 교육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다.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따라 출제될 수도 있으니 형태소 파트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독서’나 ‘등산’은 어떻게 분석되는지, 한자어 형태소도 모두 학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

33) 형태소는 왜 形態素일까? 형태소의 形態를 form으로 이해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와 닿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미를 지닌 (최소의) form이라고 보면 된다. 형태소의 素는 ‘본디, 바탕’의 의미를 지닌다. 즉 형태소라는 말은 original form, basic form, essential form이라고 이해하자.

여담이지만 혹시 ‘아지노모토’라는 일본산 조미료를 아시는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SG 조미료가 바로 ‘아지노모토’인데 이를 일본어로 쓰면 味の素라고 쓴다. (우리는 미원味元이라고 하는 카피제품이 있다.) 한국은 본질, 근원의 의미로 주로 本이나 根, 源(또는 元)을 쓰는데 일본은 素를 주로 쓰는 것 같다. 형태소라는 한자어가 일본식이라서 더욱 그 뜻이 멀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의미를 지니는 본질적 형태’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가’, ‘로’ 등과 같은 조사들은 형식,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었-’이나 ‘-다’와 같은 어미도 단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지 않으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어서 어간과 어미를 서로 다른 단어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조사가 결합하는 체언은 자립적이어서 단어로 분명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에서도 경계가 명확히 인식되고 잘 분리되므로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3. 단어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단어란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딸기, 바나나, 학교 등은 자립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모두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문법 체계에서는 조사까지도 단어도 인정하기 때문에 단어의 정의에 ‘이에 준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³⁴⁾ ‘이/가’, ‘을/를’³⁵⁾ 등은 모두 조사로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

4. 단어의 분류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개수가 대략 51만 개라고 한다. 이들을 의미, 기능,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바로 품사이다.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를 9개의 품사로 분류한다.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위의 문법 용어들은 문법 학습에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각 품사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4.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나는 죽을 때까지 너 하나뿐야.’³⁶⁾

대명사, 명사, 수사는 문장의 몸, 주체(임자)되는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많으므로 체언이라고 불러왔다. 위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체언이다.

‘나’, ‘너’ = 대명사, ‘때’ = 명사, ‘하나’ = 수사

34)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어미’가 있는데 어미는 단어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조사가 결합하는 체언은 자립적인데 반해 어미의 경우 앞에 결합하는 말인 어간이 자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간과 어미를 갈라놓았을 때, 둘 중 어느 하나도 자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함께 나타날 때만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35) ‘이/가’나 ‘을/를’은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그 모습이 둘인 경우이다. 각각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로서 하나의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오는 음운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 ‘이’와 ‘가’ 각각을 주격 조사의 ‘이형태’라고 지칭한다.

36) 대중가요 ‘SPACE A, <섹시한 남자>’ 노랫말에서 인용.

4.1.1 명사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³⁷⁾

명사는 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여기서 ‘고양이’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로 그 동물들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만약,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똥꾸’라면 ‘똥꾸’도 명사가 된다. 이렇듯 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쓰이는 이름이나,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나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눌 수 있다. 또 꾸며주는 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라는 문구에서 ‘것’은 ‘카이사르’와 달리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문장에 나타날 수 없다.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문자로 쓸 수는 있겠지만 관형어가 없어 쓰다 만 문장처럼 느껴진다.

4.1.2 대명사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³⁸⁾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다. 너, 나, 우리, 저희, 등등이 있다. 대명사의 종류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와 사람이 아닌 것을 지칭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다. ‘지은아, 우리 여기서 갈비 먹을까?’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화자와 청자를 모두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고, ‘여기’는 말하는 이로부터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대명사는 때로 확정되지 않은 대상(부정칭)이나 미지의 대상(미지칭)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름) / (현관으로 가서) ‘누구세요?’³⁹⁾ - 미지칭 인칭 대명사

‘70세든 80세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 부정칭 인칭 대명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 미지칭 지시 대명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부정칭 지시 대명사

4.1.3 수사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⁴⁰⁾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 이, 삼, 사, 오, 육, 칠’과 같은 양수사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일, 제이, 제삼, 제사’와 같은 서수사 모두 고유어계와 한자어계가 병존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만하다.

수사는 그것과 형태가 유사하나 품사가 다른 것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위 문장에서 ‘두’, ‘세’, ‘네’는 수사가 아니다. 자세히 보면 수사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모두 받침이 없다. 이들은 모두 관형사이다. ‘다섯 명’, ‘일곱 개’와 같이 다섯 이상은 심지어 수사와 형태가 완전히 같으므로 뒤에 조사가 결합하고 있는지 잘 살펴 구분해야 한다. 참고로 관형사에는 그 어떤 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 관형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7) 대중가요 ‘동방신기, <HUG>’ 노랫말에서 인용.

38) 대중가요 ‘아이유, <너랑 나>’ 노랫말에서 인용.

39) 누구세요 = 누구 + (이-) + -시- + -어 + 요 = 누구세요

40) 대중가요 ‘god, <촛불 하나>’ 노랫말에서 인용.

4.2 관계언 - 조사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지금 이 순간 드러난다.’

관계언에 속한 품사는 조사 하나뿐이다.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주로 체언)에 붙어 문장 속에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에 어떤 뜻을 더해 주는 품사이다. 조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 문장에서 ‘와’, ‘의’, ‘는’은 각각 접속 조사, 격 조사, 보조사가 쓰인 사례이다.

4.2.1 격 조사

격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는 문장 성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가 바로 그 말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문장 성분을 일곱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격 조사도 일곱 종류가 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보자.

(주 격) 하늘이 푸르다. 바다가 푸르다.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신다. 둘이서⁴¹⁾ 같이 가자.

(목적격) 나물을 캐다. 뒤를 캐다.

(보 격) 눈물이 바다가 되다. 바다가 눈물이 되다.

(서술격) 나는 자연인이다.

(관형격) 그것은 나의 오랜 꿈이다.

(부사격) 그녀는 경주에 갔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냉면은 평양(에)서 온 것이다. 기차가 서울로 출발했다.

칼로(써) 사과를 깎는다. 교사로서 그런 복장은 적절하지 않다.

사과는 배와 다르다. 사과는 수박과 다르다.

저는 언니랑 성격이 좀 달라요. 나는 언니하고 같이 서울에 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가 없는 하루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듯 나를 감싸고

만두를 호빵만큼 크게 빳었다.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⁴²⁾. 여자는 다 똑같나봐.

(호 격) 지은아, 나비야, 하늘이여, 신이시여

4.2.2 접속 조사

‘배와 사과’는 다르다.’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사과하고 배하고 하나씩 사 오너라.’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의 자격이란 당연히 문장 성분을 의미한다. 즉 접속 조사가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문장 성분일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이어준 뒤의 체언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위 예문에서 ‘와’는 ‘배’와 ‘사과’를 이어주고 있다. ‘사과’는 ‘다르다’라는 서술어의 주어에 해당하므로, ‘배와 사과’라는 명사구가 주어의 자격을 얻는다. 주의할 것은 ‘사과는 배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의 ‘와’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와’ 뒤에 이어줄 다른 체언이 없기 때문이다.⁴³⁾ 쉽게 이야기하면 ‘와’ 뒤에 체언이 이어져야 접속 조사이다.

‘(이)랑’과 ‘하고’도 구어체에서 주로 쓰이는 접속 조사이므로 기억해 두자. 특이한 점은 ‘와/과’와 달리 마지막에 이어진 체언 뒤에도 결합한다는 것이다.

41) 둘(수사) + -이(접사) + 서(조사)

42) 같은 형태의 부사 ‘같이’도 있으니 유의. ex.세월이 물과 같이(부사) 흐른다.

43) 주로 내신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4.2.3 보조사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보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에 어떤 뜻을 더해 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는’인데, 의외로 ‘은/는’이 주격 조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은/는’은 격 조사가 아니다. 비교-대조-화제-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임을 반드시 기억하자. 보조사는 결합 환경이 매우 넓어 용언의 활용형 뒤에도 곧잘 나타난다. 다른 보조사 뒤에 연이어 결합할 수도 있고(너만은) 격 조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너만을) 다양한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은/는) 사랑은 별빛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게 남기고

(만)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노래를 부르고

(마는) 사랑했지만⁴⁴⁾ 그대를 사랑했지만

(도) 아무런 약속도 없는 일요일 오후.

(마저)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조차)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채 땀 수 없을지라도

(까지) 그래, 그렇게까지 해 놓으면 속이 좀 시원해질까

(부터)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마다) 한 장씩 너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이라도) 진짜 조금 내 십분의 일이라도⁴⁵⁾ 아프다 행복해줘.

(이/가) 난 사랑이⁴⁶⁾ 하고 싶어.

(을/를) 만나도 웃지⁴⁷⁾ 않고 시계만 보는 네가 딴 사람 같아.

(요) 지쳤나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그려) 자네가 이야기를 좀 하게나그려.

심화

아니오 vs 아니오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오.”(O) /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X)

하오체 종결 어미는 ‘-오’이다. 그러므로 용언 ‘아니-다’의 활용형은 ‘아니오’가 맞고 ‘아니요’는 틀렸다. 물론 연결어미를 쓰면 ‘아니요’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침대는 가구가 아니요, 과학이다.”라고 하면 활용형으로서의 ‘아니요’가 가능하다.

“아니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O) / “아니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해오체의 대답하는 말(감탄사)로서는 ‘아니오’가 적절하다. 해체로 대답하고자 한다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때의 요는 보조사이다. 만약 위의 후자처럼 ‘아니오’라고 한다면 주어와 보어가 생략되고 서술어만 나타난 문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테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처럼 하오체로 무언가를 부정하는 문장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하십시오체의 종결형인 ‘아닙니다’와 높임의 수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된다.

44) ‘마는’의 준말. 앞의 ‘-지’는 어미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와 ‘마는(만)’이 결합한 형태인 ‘-지 마는(만)’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어미의 일부분으로 보아도 좋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5) 그 앞의 ‘만’도 역시 보조사이다.

46) 주격 조사 ‘이’와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얼핏 생각해도 이 자리에는 ‘이’가 아니라 목적격 조사 ‘을’이 와야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가 쓰여도 묘하게 뜻이 통하면서 강조의 의미가 덧붙는데, 이런 경우의 ‘이’를 보조사로 본다.

47) 자세히 보면 ‘를’이 본용언 ‘웃지’와 보조용언 ‘않고’ 사이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용언의 활용형인 ‘웃지’ 뒤에 결합한 ‘를’은 보조사이다. 강조의 의미를 덧붙인다.

4.3 용언 - 동사, 형용사

“뭐 없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 영화 「신세계」 中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라서 용언이다. 우리말에 활용할 수 있는 말의 대표주자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는 용언처럼 활용할 수 있다.) 활용이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문장의 성격이나 의미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만 문장에 드러날 수 있어서(각각 의존 형태소) 사전에 등재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미인 ‘-다’를 결합한 형태로 등재한다.

4.3.1 본용언과 보조용언

용언은 그 쓰임새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도 나눌 수 있다. 위 예문의 ‘살려’는 본용언의 예이고 ‘드릴게’는 보조용언의 예이다. 본용언 뒤에 붙은 ‘는’은 보조사이다. 대사를 구조화시켜보면 ‘(내가) (너희를) 살려 드리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드리다’는 결코 목적어 ‘너희를’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드리다’는 본래 용언으로서 가진 의미(무엇을 주다)가 탈색되고 본용언인 ‘살리다’에 일정한 의미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보조용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보조적 연결어미 ‘-아’, ‘-게’, ‘-지’, ‘-고’에 의해 주로 연결된다. 다음을 통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용법을 살펴보자.

(말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 먹-지(본) 말-시-어요(보조)

(보다) 그대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 부르-어(본) 보-ㅂ니다(보조)

(싶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 만나-고(본) 싶-다(보조)

(있다) 지금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향하-고(본) 있-습니다(보조)

(지다) 선생님의 말씀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다. → 느끼-어(본) 지-었-다(보조)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 만들-어(본) 지-다(보조)

(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나무를 심게 했다. → 심-게(본) 하-았-다(보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해. → 준비하-려(본) 하-아(보조)

행복해야 해. → 행복하-아야(본) 하-아(보조)

비도 오고 해서 그냥 걸었어. → 오-고(본) 하-아서(보조)

어머니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 자랑스럽-어(본) 하-았-다(보조)

‘싶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그 형태가 같으므로 문맥적으로 살펴보고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에 배우게 될 문장의 짜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라면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하면 되지만,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라면 두 개의 서술어가 되어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보고서는 점심 먹고 뵙시다.’에서 ‘먹고’와 ‘뵙시다’는 각각 본용언으로 쓰였다. 반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뵙시다.’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에서 ‘보-다’는 보조용언으로 쓰였다.

용언이 연속될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이라면 둘 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 본용언과 달리 보조용언은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를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 점심 먹고 뵙시다’에서는 ‘먹고’와 ‘뵙시다’ 사이에 ‘이따’라는 부사어를 추가할 수 있지만 보조용언이 쓰인 문장에서는 둘 사이에 어떤 문장성분도 추가될 수 없다.

심화

○ 보조용언 관련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적한다.	잘 아는적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네가 덩벼들어 보아라. 잘난 체를 한다.	책을 읽어도 보고…….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

[제47항 부연 해설]

그런데 합성 동사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은, 그 표기 단위가 길어짐을 피하려는 것이므로, 예컨대

나-가 버렸다 → 나가버렸다 손-대 본다 → 손대본다	빛-나 보인다 → 빛나보인다 잡-매 준다 → 잡아매준다
----------------------------------	-----------------------------------

따위처럼,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 둘 만하다 도와 줄 법하다	읽어 볼 만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	-----------------------

처럼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기억해들 만하다 도와줄 법하다	읽어볼 만하다 되어가는 듯하다
---------------------	---------------------

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4.3.2 동사 형용사의 구별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내는 품사이다. 반면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둘은 의미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걷’고 ‘달리’고 ‘뛰’는 것은 움직임을 과정적 서술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뜻하’고 ‘덥’고 ‘뜨겁’다는 것은 성질이나 상태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일까 내 마음의 성질이나 상태일까?

언어적 직관과는 달리 ‘사랑하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에서 차이가 나므로 둘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활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구분의 기준	동사	형용사
‘-는-’ 또는 ‘-ㄴ-’과의 결합 가능성	사랑한다 (O) 굽는다 (O)	예쁘다 (X) 맛있는다 (X)
‘-는’ 또는 ‘-ㄴ’과 결합시의 시제 변화	사랑한 (과거) 굽은 (과거)	예쁜 (현재) 맛있는 (현재)
명령 및 청유형 어미의 결합 가능성	사랑해라 (O) 굽자 (O)	예뻐라 (X) 맛있자 (X)
‘-다’와 결합한 기본형의 실제 활용 여부	“나는 꽃을 사랑하다.”(X) “나는 벽을 굽다.”(X)	“재 정말 예쁘다.”(O) “라면은 정말 맛있다.”(O)

대부분의 경우 위의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3.3 어간語幹stem과 어미語尾ending

용언의 형태를 조금 더 문법적으로 분석하자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각각 어간과 어미라고 한다. 어미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어말어미는 필수적이다. 어간은 어말어미 없이 단어로 문장에 나타날 수 없다. 어말어미의 어말이란 바로 ‘단어의 끝’을 의미한다. 어말어미가 나타나야 용언은 비로소 단어가 된다.

어간-	-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밥을) 먹- (맛이) 좋-	-었- -겠- -(으)시- -는- -더-	평서형 : -다.	종결어미 (문장의 종결)	
		의문형 : -니?		
		명령형 : -어라.		
		청유형 : -자.		
			감탄형 : -구나!	전성어미 (안긴문장 생성)
			명사형 : -(으)ㄴ, -기	
			관형사형 : -는, -(으)ㄴ, -(으)ㄹ	
			부사형 : -게, -도록	
			대등적 : -고, -거나, -지만	
			종속적 : -아/어서, -(으)면, -고(서)	
	보조적 : -아/어, -게, -지, -고	연결어미 (용언의 연결)		

선어말어미는 주로 시제나 높임표현과 관련된다.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 정도라고 보면 된다. 반면 어말어미는 의미적 차이도 드러내지만 문법 장치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특히 전성어미와 연결어미는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그 체계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전성어미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며 각각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로 안긴문장을 만드는 문법장치이다. (안긴문장에 대해서는 문장의 짜임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연결어미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 이중 보조적 연결어미는 위의 보조용언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본용언을 이어주는 연결어미이다. 그 말은 곧 두 문장을 연결해준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래서 대등적, 종속적 연결어미는 이어진문장을 만드는 문법장치라 할 수 있다. (이어진문장도 문장의 짜임 단원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전성어미 중 부사형 전성어미는 때때로 종속적 연결어미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법 교과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대부분의 부사형 전성어미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볼 수 있고, 종속적 연결어미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에서도 이들을 구분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아니라 항상 부사형 전성어미로만 분석된다.

‘나는 멋있게 생겼다.’

이때 ‘생기다’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산적처럼’과 같은 부사어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때의 ‘-게’는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볼 수 있다.

4.3.4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현대국어 불규칙활용의 원인을 중세국어 자료를 통해 탐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길이) 좁다: /좁-아/ → 좁아[조바]	(그를) 돕다: /돕-아/ → 도와[도와]
(신을) 벗다: /벗-어/ → 벗어[벗서]	(노를) 젓다: /젓-어/ → 져어[져어]

같은 어간과 어미인데 어찌하여 ㅂ이 반모음-ㄱ로 교체되고 ㅅ이 탈락하는 음운변동이 일어날까? ㅂ으로 끝나는 모든 용언의 어간이 어미 -어/아 앞에서 반모음-ㄱ/ㄷ로 교체된다면 그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 보편적 현상, 즉 규칙적 활용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다’, ‘접다’, ‘씹다’ 등 대다수 용언들은 어미 -어/아 앞에서 ㅂ이 그대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음운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활용양상을 보이는 용언들을 불규칙용언이라고 한다. 다음을 통해 불규칙용언을 확인하자.

불규칙활용		규칙활용
(어간)ㅅ-불규칙	(밥을) 짓다: /짓-어/ → 지어	씻다: /씻-어/ → 씻어
(어간)ㄷ-불규칙	(의견을) 묻다: /묻-어/ → 물어	연다: /연-어/ → 연어
(어간)ㅂ-불규칙	(이웃을) 돕다: /돕-아/ → 도와	좁다: /좁-아/ → 좁아
(어간)ㄹ-불규칙	(땀이) 흐르다: /흐르-어/ → 흘러	치르다: /치르-어/ → 치러
(어간)우-불규칙	(물을) 푸다: /푸-어/ → 피	주다: /주-어/ → 쥐
(어미)여-불규칙	(무엇을) 하다: /하-아/ → 하여 (→ 해)	파다: /파-아/ → 파
(어미)러-불규칙	(하늘이) 푸르다: /푸르-어/ → 푸르러	따르다: /따르-아/ → 따라
(복합)ㅎ-불규칙	(바다가) 파랗다: /파랑-아/ → 파래	좋다: /좋-아/ → 좋아

4.4 수식언 - 관형사, 부사

‘미련 가득히 이 자릴 채우면 그대는 돌아오나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수식하는 말이 꼭 필요하다. 이때 변하지 않는 형태로 늘 수식하는 역할만 꾸준히 하는 단어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수식언이라 한다. 위의 ‘가득히’는 용언인 ‘채우면’을 꾸미는 부사이고, ‘이’는 체언인 ‘자리’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4.4.1 관형사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제한하거나 덧붙이는 품사이다. 관형사의 한자를 풀어보면 관冠은 갓을 뜻하고 형形은 형상을 뜻하는데 체언에 갓을 씌우듯 성격을 제한하고 덧붙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관형사는 불변어로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뒤에 보조사조차도 결합하지 못한다. 관형사의 사례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으며 다만 눈으로 익혀두면 추후 문장성분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용언의 활용형과 그 형태가 같아 주의가 필요한 관형사이다.(㉟:동사의 활용형, ㉠:형용사의 활용형)

-성상 관형사-

- (옛) 10년 뒤 찾은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 (새)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 (매) 그 팀은 매 경기 우승했다.
 - (순) 이 요리는 순 살코기로 만들어졌다.
 - (주) 그 무용수는 런던과 파리를 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약) 두 사람은 약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 ★(현) 할아버지는 말없이 현 신문지를 모았다.
- 피곤해서 입이 현(㉟혈-ㄴ) 경우에는 매운 음식을 먹지 마세요.

-수 관형사-

- (한) 간장치킨 한 마리만 배달해 주세요.
- (다섯) 다섯 개의 로봇이 합체하면 펜타스툼이 돼요.
- (닷) 술을 닷 되나 마셨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나.
- (한두) 한두 번 도전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여러) 세계 여러 가지 음식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이곳.
- (모든) 입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온)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 (몇) 만원 몇 장만 가져와봐.
- (온갖)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온갖 걱정을 다 했다.
- (갖은) 갖은 고생을 다 겪고 나서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 (전췌)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지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시 관형사-

- (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 (그) 그 책 이리 좀 줘.
- (저) 저 산을 넘어야 한다.
- (어느) 그가 어느 쪽으로 달아났는지 말해라.
- (무슨) 이게 무슨 냄새지?

(어떤) 그는 어떤 사람이니? / 나는 러시아에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났다.

(웬) 이게 웬 날벼락이람?

(현現)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前) 노무현 전 대통령

★(다른)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출근했다.

우리는 다른(㉸다르-ㄴ) 생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아빠가 이런(㉸이러-ㄴ) 적 있었니? 없었잖아. 정말 서운하다.

★(그런) 그런 슬픈 이야기는 그만 합시다.

형이 유리창을 깬데 어머니께서는 형이 그런(㉸그러-ㄴ) 줄 몰랐다.

★(저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애가 실수로 저런(㉸저러-ㄴ) 걸 가지고 뭘 야단치고 그래?

★이 붙은 관형사 중 ‘다른’의 경우 의미상의 차이가 명확하다. 관형사는 他other의 뜻을, 형용사는 異different의 뜻을 지닌다. 그러나 나머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문법적 탐구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이들을 언급하셨다면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학생의 성실성 또한 평가해야 하는 시험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4.4.2 부사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품사이다.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나, 종종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한다. 부사는 특정 문장성분을 꾸며주는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로 나누어진다. 문장부사는 다시 영어의 접속사와 유사한 접속부사,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양태부사로 나누어진다. 물론 부사의 분류를 외울 필요는 없다.

-성분부사-

(참) 참 경치가 좋다.

(참으로) 어머니가 없는 그해 여름은 참으로 무덥고 길었었다.

(진짜로) 진짜로 미친 사람은 한사코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고집을 세운다던가.

(정말로) 지구가 정말로 둥글까?

(많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너무)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

(가장) 그 아이가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르다.

(아주) 이번 시험 문제는 아주 쉽다.

(겨우) 시험에 겨우 합격하다.

(특히) 특히 퇴근 시간에는 다른 때보다 차가 많이 밀린다.

(빨리) 이거 빨리 결정해야 해.

(이리) 이리 바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 이리 가까이 오게.

(그리) 자네가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네. / 물건은 즉시 그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리) 사람이 밟고 사는 땅이 어찌 저리 새하얗 수가 있을까? / 저리 가 있어라.

(못)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안)(아니) 저는 술을 안(아니) 마십니다. / 나의 양심은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문장부사-

- (다행히) 불이 났으나 다행히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과연) 과연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 자식 일인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도리어)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집에 있는지 또는 시장에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4.5 독립언 - 감탄사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오, 오, 오, 오, 오’⁴⁸⁾

감탄사라고 하면 감탄하는 말만 해당할 것 같지만, 감탄하는 말이 아니라도 감탄사가 될 수 있다. 슬픔, 비웃음, 부름, 대답, 입버릇, 더듬거리는 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감탄사 또한 형태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용언의 활용형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의미나 기능상으로 부사어와도(양태부사) 유사하므로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앗) 앗!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구나!
(흥) 흥, 나 몰래 다 먹으려고 했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봐) 이봐, 여기 커피 좀 줘봐.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한번 물어볼까?
(아니) 아니. 그럴 생각 없어.
(응) 응. 그런 거 아니야.
(어) 제가 집에 가려던 게 아니라, 어, 잘 모르겠어요.
(웁소) 웁소, 결판을 냈시다.
(에구머니) 에구머니, 깜빡 잊었네!
(천만에) 그가 나를 비방했다고요? 천만에요,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감탄사 뒤에는 보조사 ‘요’가 곧잘 붙는다. 아니요, 그래요, 이봐요, 천만에요 등이 그러한 예이다. 감탄사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감탄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방금 문장의 ‘이를테면’은 감탄사일까 부사일까? 정답은 부사이다. 부사어에 관한 탐구 지문을 주고, 감탄사를 그럴듯하게 부사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보세요’를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붙은 것처럼 속이는 선택지가 예상된다. ‘누구세요’를 분석하듯이 ‘여보+(이)-시-어요’로 분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세요’는 ‘(당신은) 누구이시어요?’라고 주어를 추론할 수 있으나 ‘여보세요’는 ‘(당신은) 여보이시어요?’로 추론되지 않아 서술어로 보기 어렵다. ‘천만에’도 수사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속일 수 있다. 주의가 요구된다.

48) 전설의 레전드 대중가요 ‘소녀시대, <Gee>’ 노랫말에서 인용.

기본

5. 단어의 형성 - 어근語根과 접사接辭 root & affix

모든 요리에는 주재료(Main)가 있기 마련이다. 닭고기에 밀가루, 소금을 발라 기름에 튀기면 통닭이 되고, 닭고기에 찹쌀과 인삼을 넣고 푹 끓이면 삼계탕이 된다. 이때 닭은 주재료요, 밀가루나 찹쌀은 부재료(sub)다. 소금이나 후추와 같은 조미료는 당연히 부재료이다.

단어가 형성됨에 있어서도 주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다. ‘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다’는 의미를 지닌 ‘맑-’이 주재료가 되고,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게 해주는 문법적 장치인 ‘-이’가 부재료가 된다. ‘드높다’라는 단어는 ‘높다’가 주재료가 되고⁴⁹⁾, 정도가 높거나 심하다는 부차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드-’가 부재료가 된다. 고춧가루를 넣으면 칼칼한 맛이 더해지듯이 단어 형성에서 부재료는 문법적인 성질을 바꾸어 주거나 부차적인 의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 형성의 주재료와 부재료를 지칭하는 문법 용어가 바로 어근語根과 접사接辭이다. 문법 영역에서 매우 자주 다루는 용어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자. 어근과 접사의 공식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근 :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 :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5.1 합성어와 파생어, 단일어

‘민물고기’

민물고기는 단일어일까 복합어일까? ‘민+물고기’이든 ‘민물+고기’이든 어근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므로 단일어는 아니다. 복합어라고 해야겠다. 그렇다면 민물고기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복합어 중에서도 접사가 붙어 있으면 파생어, 없으면 합성어라고 하는데, ‘민물고기’는 의미적으로 볼 때 ‘민물’에 사는 ‘고기’이므로 ‘민물+고기’로 분석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 ‘민물고기’는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이다.

‘민물고기’의 어근 두 개를 다시 분석해보자. ‘민물’은 ‘민-’과 ‘물’로 쪼갤 수 있는데 여기서 ‘민-’이라는 접사와 ‘물’이라는 어근이 나타나므로 ‘민물’은 파생어라 할 수 있다. ‘고기’는 ‘고’와 ‘기’로 쪼개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일어라 할 수 있다.⁵⁰⁾

이처럼 단어가 복합어인 경우, 최종적인 결합 양상을 살펴야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할 수 있다. 단순히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중에 접사가 있다 없다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이를 직접구성요소 분석(IC)이라고 한다.

49) 용언의 어미는 단어 형성의 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높다’는 하나의 재료이지, ‘높-’이라는 주재료에 ‘-다’라는 부재료가 결합한 형태가 아니다. 반면 ‘높이’는 ‘높-’이라는 주재료에 ‘-이’라는 부재료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이’는 어미가 아닌 (파생) 접사이기 때문이다.

50) 용언의 경우에는 어미를 제외하고 어간의 구성 형태소만을 살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구분이 이루어진다. ‘먹-다’는 비록 실질형태소 ‘먹-’과 형식형태소 ‘-다’가 결합한 단어이지만 단일어로 본다. 어간이 단일어근이기 때문이다. 반면 ‘먹이다’는 어간이 ‘먹이-’이고, 이는 다시 ‘먹-’과 ‘-이-’로 분석되어 파생어로 분류한다. ‘빌어먹다’의 경우 ‘빌어먹-’이 어간이고, 이는 (어미를 제외하면) ‘빌-’과 ‘먹-’이라는 두 어근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성어로 분류한다.

5.2 합성어

합성어의 사례를 살펴보자.

-합성명사-

돌+다리 새+해 늙은+이 ★검+버섯 ★산들+바람 볍음+밥 ★부슬+비

-합성동사-

값+나가다 본+받다 들어+가다 가로+막다 거덜+나다 ★끓+주리다

-합성형용사-

낮+설다 ★높+푸르다 손+쉽다 값+싸다 맛+나다 뿔디+뿔다 머나+멀다

-합성관형사-

한+두 온+갖 여+남은

-합성부사-

곧+잘 하루+빨리 밤+낮 한+바탕 이른+바 곧+잘 잘+못

합성어와 관련하여 주로 출제되는 것은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이다.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라는 말과 유사한데, 어떤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상통하면 통사적,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 위의 ★는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5.3 파생어

파생어는 접두사가 붙느냐 접미사가 붙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다. 사례를 살펴보자.

-접두파생어-

갓-스물 개-떡 날-고기 맨-손 돌-배 한-겨울 애-호박

짓-누르다 옛-보다 치-솟다 들-볶다 새-까맣다 드-높다

덧-신 뒤-범벅 올-벼 올-되다 헛-되다

비-공식 무-조건

-접미파생어-

멋-쟁이 앞-사귀 너-희 그-들 셋-째

밀-치다 깨-뜨리다 ★철렁-거리다 높-다랗다 ★울긁불긁-하다 ★슬기-롭다

더욱-이 다시-금 ★자연-히 ★진실-로 ★정말-로 ★결단-코 ★같-이

★물-음 ★넓-이 ★공부-하다 ★반듯-하다

이-씨 김-가 인간-적 서울-발 평론-가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물론 예외가 있음) 이에 따라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을 어휘적 파생법이라고 한다. 반면 접미사 중 일부는 지배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배적 접사에 의한 파생법을 통사적 파생법이라고 한다. ★는 모두 통사적 파생어이다.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짜임새 統辭論

1. 문법요소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

‘통사’라는 말은 ‘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파생어’에서 이미 배웠다. 이때 통사적이란 말은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었다. 문법요소 중에는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꽤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문법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1 피동과 사동

피동과 사동은 각각 피동문과 사동문에 의해 드러나며, 피동문과 사동문은 각각 파생적인 방법(by 접사)과 통사적인 방법(by 보조용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1.1.1 피동被動

피동의 의미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피동의 피被가 쓰인 단어는 다음과 같다.

피격被擊 : 습격이나 사격을 받음.

피사체被寫體 : 사진에 찍히는 물체.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를 당한 사람.

피선거권被選舉權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종합하면 피동이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무엇을 당하거나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동문이 필요하다. 물론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문법적 피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피동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파생적 피동문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1.1.1.1 파생적 피동문 - 단형 피동

파생적 피동문은 용언에 피동의 파생 접사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피동문이다. 피동의 파생 접사로서는 ‘-이-’, ‘-히-’, ‘-리-’, ‘-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덧붙이는 피동 접사의 이형태라고 볼 수 있다.

능동문	→	피동문
(-이-) 벌이 사람을 쏘았다.	→	벌에 사람이 쏘였다. (쏘 <u>이</u> -었-다)
(-히-)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잡 <u>히</u> -었-다)
(-리-) 모기가 나를 물었다.	→	내가 모기에 물렸다. (물 <u>리</u> -었-다)
(-기-) 인부들이 벽을 뜯었다.	→	벽이 인부들에게 뜯겼다. (뜯 <u>기</u> -었-다)

이때 각각의 피동 접사들은 능동문의 용언 어간을 어근으로 삼아 결합하여 새로운 어간을 파생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천천히 살펴보자. ‘쏘았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인가? ‘쏘-’까지이다. 이 ‘쏘-’를 어근으로 하여 단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단어를 생성

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어근이라고 했었다.) 어근 ‘쏘-’에 접사 ‘-이-’가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용언인 피동사 ‘쏘이-다’가 만들어진다. 파생어가 된 이후부터 이 피동사의 어간은 ‘쏘-’가 아니라 ‘쏘이-’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도 접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으로 인정한다.

(-되다) 그는 간척공사에 유조선을 사용하였다. → 간척공사에 유조선이 사용되었다.

(-받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 그는 그녀에게 사랑받았다.

(-당하다) 선생님은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 나의 제안이 선생님에게 거절당하였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접사로 인정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동사로서의 ‘되다, 받다, 당하다’와 본질적인 의미 차이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 피동사를 만드는 이러한 피동 접사들은 단순히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능동문의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등 문장 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동 및 사동을 문장론, 통사론에서 다루게 된다.

1.1.1.2 통사적 피동문 - 장형 피동

파생적 피동문이 피동 접사에 의한 것이라면, 통사적 피동문은 피동의 보조용언 ‘지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조 용언을 통해 피동문이 만들어지다.’

이때 ‘만들어지다’의 ‘-어지다’는 하나의 어미가 아니다. ‘-어’까지가 보조적 연결어미이고 ‘지다’는 보조용언이다. 그러나 보통의 보조용언과 달리 항상 붙여 쓰는 것을 한글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어미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기억하자. ‘-어지다’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을 붙여 쓴 형태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통사적 피동을 마저 숙지하자.

약속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 (늦추-어 지-었-다)

이 건물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보태어졌다. (보태-어 지-었-다)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평화롭-어 지-었-다)

청소를 해서 방이 깨끗해졌다. (깨끗하-아 지-었-다)

초코파이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따뜻하-아 지-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가 합성어로 굳어진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인데 문법적 직관으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문법적 탐구의 과제로 삼기 부적절하기 때문)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도 있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한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어지다’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사례이다.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다. / 그의 얼굴은 모자에 반쯤 가려진 상태였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 나는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건물 기둥이 불에 녹아 비틀어졌다.

한편 2018학년도 수능특강에서는 통사적 피동으로 ‘-게 되다’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되다’의 보조용언 용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중국어사전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조용언으로서의 ‘되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둘의 입장이 차이가 나므로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통사적 피동으로 ‘되다’를 엮어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2 사동使動

사동의 의미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사동의 사使가 쓰인 단어는 다음과 같다.

사환使喚 :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사역使役 :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종합하면 사동이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무엇을 시키거나 어떻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동문이 필요하다. 물론 어휘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문법적 사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사동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파생적 사동문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사동문이다.

1.1.2.1 파생적 사동문 - 단형 사동

파생적 사동문은 용언에 사동의 파생 접사를 결합하여 사동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사동의 파생 접사로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덧붙이는 사동 접사의 이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이-, -히-, -리-, -기-’는 피동 접사와 형태가 같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주동문	→	사동문
(-이-) 아이가 밥을 먹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먹이-었-다)
(-히-)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입히-었-다)
(-리-) 아이가 벌금을 물었다.	→	경찰이 아이에게 벌금을 물렸다. (물리-었-다)
(-기-) 아이가 임무를 맡았다.	→	선생님이 아이에게 임무를 맡겼다. (맡기-었-다)
(-우-) 봄나물로 입맛이 돋았다.	→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었다. (돋우-었-다)
(-구-) 쇠가 빨갱게 달았다.	→	풀무질로 쇠를 빨갱게 달구었다. (달구-었-다)
(-추-) 온도가 낮다.	→	방이 더워서 온도를 낮추었다. (낮추-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접사들도 피동문을 만드는 것으로 인정한다.

(-애-) 문제가 없다.	→	문제를 없애다. (없애-다)
(-시키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	어머니는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시키-었-다)

역시나 사동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접사가 등장했다. ‘시키다’는 ‘입원을 시키다’일 때와 ‘입원시키다’일 때 의미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여 쓸 때에는 접사로 인정되고, 띄어 쓸 때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어이가 없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알고 있자.

1.1.2.2 통사적 사동문 - 장형 사동

파생적 사동문이 사동 접사에 의한 것이라면, 통사적 사동문은 사동의 보조용언 ‘하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게’는 보조적 연결어미이며 ‘하다’는 보조용언이다.

문법은 나를 미치게 한다.

그는 나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반장에게 출석을 부르게 하셨다.

1.2 부정否定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부사나 보조용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보조용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1.2.1 짧은 부정문

짧은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 부사는 ‘안(아니)’과 ‘못’이다.

나는 내일부터 밥을 안 먹을 계획이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나는 요즘 통 잠을 못 잤다.

흔히 ‘안(아니)’를 의지 부정, ‘못’을 능력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은 위와 같이 단순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다.

1.2.2 긴 부정문

긴 부정문에 쓰이는 보조용언은 ‘않다(아니하다)’와 ‘못하다’이다.

나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않을 계획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다.

나는 요즘 잘 통 자지 못했다.

그런데 ‘않다(아니하다)’와 ‘못하다’는 청유형과 명령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않자.

급식실에서는 뛰지 *않으세요.

부정문의 청유형과 명령형에는 보조용언 ‘말다’가 대신 나타난다.

우리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말자. (말-자)

급식실에서는 뛰지 마세요. (말-(으)시-어-요)

그대는 행복하지 마요. (말-아요)

이때 ‘말다’의 활용형으로서 ‘말아요’ 또는 ‘마요’로 모두 쓰일 수 있는데, ‘말아요’는 문어체, ‘마요’는 어간의 ‘ㄹ’과 어미의 ‘아’가 탈락한 구어체로 분석된다.

심화

○ 안되다 / 못되다 / 못하다(본용언)

부정부사 ‘안’이나 ‘못’이 어근으로 쓰여 새로운 말이 된 경우가 있다.

월드컵 때문에 공부가 안된다.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안되는 높은 두부에도 뼈가 있다.

그것참 안됐군.

안색이 안돼 보이네요.

녀석은 심성이 참 못됐다.

선임은 나에게만 유난히 못되게 굴었다.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마.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죄송해요.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술도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나요? 콩국수 맛이 예전보다 못하네요.

못해도 스무 명은 왔을 것 같아요.

이때의 ‘못하다’는 본용언으로서의 ‘못하다’이다. 우리가 배운 부정의 보조용언은 ‘-지’ 뒤에 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참고로 보조용언 ‘못하다’가 ‘-지’ 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뜻이 달라진다.

그의 얼굴은 희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다.

결국 먹다 못해 음식을 남겼다.

보다 못해 참견을 하고 말았다.

기다리다 못하여 결국 돌아갔다.

이때의 ‘못하다’는 보조 형용사로서 ((주로 ‘-다(가) 못하여’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1.3 시제와 동작상

우리말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에 의해 드러난다. 그런데 같은 선어말 어미라도 어간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 시제를 나타내지 않기도 하므로 항상 문맥을 살펴 해석해야 한다.

-동사-

(과거) 책을 읽었다. / 책을 읽은 사람들.

(현재) 책을 읽는다. / 책을 읽는 사람들.

(미래) 책을 읽겠다. / 책을 읽을 사람들.

-형용사-

(과거) 어제는 하늘이 맑았다. / 맑던 하늘.

(현재) 오늘은 하늘이 ★맑다. / ★맑은 하늘.

(미래) 내일은 하늘이 맑겠다. / 맑을 하늘.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형용사의 현재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는 것이다.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쓰이면 현재 시제로 간주한다. 또한 전성어미 ‘-은’이 동사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어제는 우리 집에도 눈이 하얗게 내렸겠구나.

지금은 서울에도 비가 오고 있겠군.

위 문장에서 ‘-겠-’은 미래 시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각 과거와 현재의 일을 추측하고 있다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이처럼 같은 선어말 어미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현장에서는 짐작한 판단이 요구된다.

1.3.1 동작상

동작상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표현을 말한다. 우리말의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진행상) 그들이 물려오고 있다.

(진행상) 그들이 밥을 먹고 있다.

(진행상) 꽃이 다 시들어 간다.

(완료상) 그들이 말을 타고 있다. (→ 진행상으로도 해석 가능함. 중의적 표현)

(완료상) 그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완료상)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

동작상은 주로 보조용언을 통해 나타나지만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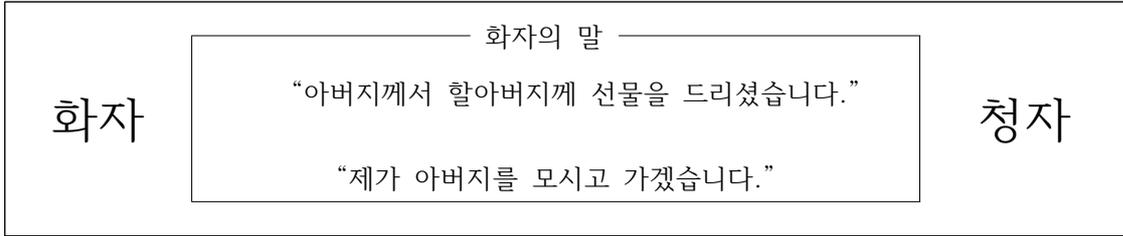
(진행상) 동생이 울면서 과자를 달라고 조른다.

(완료상) 종소리를 듣고서 학교에 갔다.

(완료상) 나는 사과를 다 갈았다.

1.4 높임법

우리말에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문법 요소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실제 발화 상황을 가정해보자.



위 발화에서 화자가 자신보다 높여 말할지 낮추어 말할지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① 청자 ② 주어 ③ 목적어 ④ 부사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 중에 ①을 높이는 것을 **상대높임법**이라 하고 ②를 높이는 것을 **주체높임법**이라 하며 ③과 ④를 높이는 것을 **객체높임법**이라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방법	상대높임법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조사		께서	께
어미	-습니다	-시-	
특수용언		주무시다, 들다	드리다, 모시다

위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주체높임과 객체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용언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진지, 약주(술), 맥(집), 성함’과 같은 특수체언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문법요소와 함께 쓰여 높임법을 실현한다.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다⁵¹⁾ 채하셨습니다. (주체높임)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진지를 차려드렸다. (객체높임)

주체높임법에서 말하는 ‘주체’란 주어를 폭넓게 보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 문장에서는 ‘사장님’이 높여야 할 대상인데 엄밀하게 보면 ‘사장님의’는 관형어이고 주어는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은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물이므로 주체높임법을 적용하여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특수용언인 ‘계시다’를 쓰지는 못한다. 특수용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어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높임법은 청자를 대우하는 방법이다. 어말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격식체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하십시다. 하였습니다니까?
	예사높임	하오체	하오. 하소.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오?
	예사낮춤	하계체	하계. 하네. 함세. 하세. 하는구먼. 하는가?
	아주낮춤	해라체	해라. 하다. 하자. 하렴. 하느냐? 하니?
비격식체	높임	해요체	해요. 하네요. 하군요. 할게요. 해요? 하지요? 할까요?
	낮춤	해체	해. 하네. 하군. 할게. 해? 하지? 할까?

해라체와 해체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보조사 ‘요’의 결합 여부를 따져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요’가 붙을 수 있으면 해체, ‘요’가 결합할 수 없으면 해라체인 것이다.

51) 드시다 = ‘들-다’(‘먹-다’의 높임말)에 다시금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것이다.

2. 문장성분

위에서 우리는 품사에 대해 배웠다. 품사는 단어에 대한 분류였다. 이번에 배울 문장성분은 어절에 대한 분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절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⁵²⁾ 학교문법에서 문장성분은 총 7가지가 있다. 주성분으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 부속성분으로서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성분으로서 독립어가 있다. 문장성분의 세부 명칭은 필수적 암기 사항이다. 특히 품사와 그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릴 지나면 우리는 사라지나요?’							
품사	관형어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성분	형용사	명사+조사	관형사	명사+조사	동사	대명사+조사	동사

형용사와 동사는 어떤 어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체언도 어떤 격 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무작정 암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맥과 교과지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문장을 주고 어떤 어절의 문장성분을 추론하게 하거나, 그 어절을 이루는 단어들의 품사를 추론하게끔 한다.

2.1 주성분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성분은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 필수적인 문장성분으로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이들 중 목적어와 보어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서술어는 문장의 성립에 필요한 문장성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적 문장성분의 개수를 헤아려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 + 서술어’의 조합으로 충분한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이며,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다.

2.1.1 주어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의 기능을 하는 말에 주격 조사 또는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문장에 나타난다. 상황에 따라 가끔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요구하므로 짝을 맞추어 보면 생략된 주어가 있음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체언+주격 조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아기가 구름을 따라 간다.

(체언+보조사)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 아기는 세상 모든 것을 신비롭게 바라본다.

(명사구+주격 조사)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모르겠다. / 철수와 영희가 공원에서 만났다.

(명사구+보조사)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 다른 사람들도 응원하기 시작했다.

(명사절+주격 조사) 이 사건은 타살임이 분명하다.

(명사절+보조사) 그가 몰래 편의점을 다니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다.

52)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문장성분이 될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 어절, 구문, 절절이다. 명사구가 주어라 될 수 있으며, 동사구가 서술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명사절이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2.1.2 서술어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풀이해주는 문장성분이다. 보통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등으로 나타난다. 품사로 보면 형용사나 동사가 주로 서술어로 쓰이며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도 자주 쓰인다.

(동사) 나는 오늘도 달린다.

(형용사) 하늘이 밝다.

(체언+서술격 조사) 나는 가수다.⁵³⁾

서술어는 종결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연결형으로도 나타나므로 주의하자. 물론 마지막에 나타난 종결형도 당연히 서술어로 인정된다. 서술어가 두 개가 되는 것이다.

(나열) 그는 한 손으로는 밥을 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선택) 사람들은 버스 위에서 날뛰거나 무작정 도로를 질주하거나 마구 소리를 질렀다.

(대조) 나는 그를 끝까지 붙잡았으나 결국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

때때로 절이 서술어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서술절이라 한다. 추후 문장의 짜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서술절이 문장의 짜임에서는 가장 출제확률이 높은 파트이다.

<서술절> 우리 동네는 <하늘이 맑다>.

서술어는 문장이 성립되는 데 필요한 문장성분을 결정한다.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적 문장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⁵⁴⁾ 즉 모든 서술어는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자릿수를 가지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단어가 다의어인데, 의미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좋다’의 사례를 살펴보자.

(1자리) 물건의 품질이(1) 좋다. / 혈색이(1) 좋다. / 날씨가(1) 좋다.

(2자리 - 【…에】) 술은(1) 건강에(2) 좋지 않다. / 흑마늘이(1) 탈모에(2) 좋다.

(2자리 - 【…보다】) 꿈보다(1) 해몽이(2) 좋다. / 내 실력이(1) 그보다(2) 좋다.

(2자리 - 【…으로】) 고랭지 배추는(1) 김장용으로(2) 좋다.

자릿수는 필수적 성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사전에서는 위와 같이 【 】 안에 필요한 문형정보를 표시한다. 한 자리 서술어의 경우 주어만 필요하므로 별도의 문형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당연히 필요한 문장성분) 세 자리 서술어의 경우 【…을 …으로】와 같이 두 개의 문형정보를 한꺼번에 표기한다. 사전을 활용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을 적극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자. 참고로 한컴사전에서는 문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1.3 목적어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나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목적격 조사는 ‘ㄹ’로 줄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체언+목적격 조사) 누가 전쟁을 말하는가? / 누가 평화를 말하는가?

(명사절+목적격 조사) 내가 그를 질투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체언+ㄹ) 누가 날 좀 사랑해줘.

(체언+∅) 애, 밥 먹고 가.

53) 가수다 = 가수 + (이-) + -다 →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는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4) 부사어는 본디 필수적 성분이 아니다. 그러나 서술어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사어를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시킨다.

2.1.4 보어

보어는 학교 문법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다. ‘되다’와 ‘아니다’만이 취할 수 있는 문장성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용언도 보어를 취하지 못한다. 오직 이 둘뿐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수업을 통해 설명을 듣도록 하자.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 상당 어구에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되다)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될래? / 이 아이는 자라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됩니다.

(아니다) 저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주의할 것은 ‘되다’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전부 보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다가 육지로 되었다.’

위 문장의 ‘육지로’는 보어가 아니라 부사어로 처리한다. ‘로’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보어로 처리하면 더 깔끔할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수의 부사격 조사가 보격 조사로도 인정받아야 하므로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깔끔하게 보격 조사는 ‘이/가’만 인정한다.

2.2 부속성분 -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는 체언을, 부사어는 관형사, 부사, 용언 그리고 문장을 꾸며줄 수 있는 문장성분이다. 주로 수의적인 문장성분으로 쓰이나 가끔 필수적으로 쓰이는 때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1 관형어

관형사와 헷갈리지 말자. 관형사는 불변어로서 하나의 품사였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모든 어구를 말한다. 따라서 관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품사가 관형어를 구성할 수 있다.

(관형사)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명사) 어제는 아빠 차를 잠시 빌려 썼다.

(체언+관형격 조사) 한국은 나의 조국이지만, 파리는 나의 고향이다.

(용언-관형절) 예쁜 꽃이 피었다. / 떠나는 기차는 따라가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용언-명사절) 나는 비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왔다.

관형어는 때로 필수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나는 놀아본 적이 없다. / *나는 적이 없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 *것이 것이다.

위와 같이 의존 명사가 포함된 문장은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형어를 서술어의 자릿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가짓수인데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는 서술어가 아니라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2.2.2 부사어

부사어는 서술어에 덧붙여 그 뜻을 한정하는 말이다. 주로 부속성분으로 쓰이나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기도 해 반복적 학습이 요구된다. 부사어 또한 부사 및 다양한 품사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모든 부사는 부사어가 되므로 품사 단원에서의 예문을 꼭 참조할 수 있도록 하자.

(부사) 단풍 색깔이 아주 곱다.

(용언-부사절) 단풍 색깔이 눈부시게 곱다.

(체언+부사격 조사) 단풍 색깔이 비단처럼 곱다.

(명사절+부사격 조사)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부사어 중에는 문장의 성립을 위해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자릿수에 포함됨) 필수적 부사어만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바 있으므로 내신이든 수능이든 필수적 부사어를 판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이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영수는 철수와 다투었다.

철수는 영희와 결혼했다.

법 앞에서는 신하도 왕과 평등하다.

우리는 그 친구와 오늘도 만났다.

그들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선생님은 간단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영어책에 단어장이 딸려 있다.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빠졌다.

두꺼운 패딩은 한겨울용으로 적합하다.

우리 형은 이 동네 지리에 어둡다.

우리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아버지는 버스에 탔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다.

그때 꼬마는 아파트 벽에 낙서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나는 친구에게 집을 빌려주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일을 시키셨다.

관중들은 경기장에 쓰레기만 남기고 떠났다.

그들은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그때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했지.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2.3 독립성분 - 독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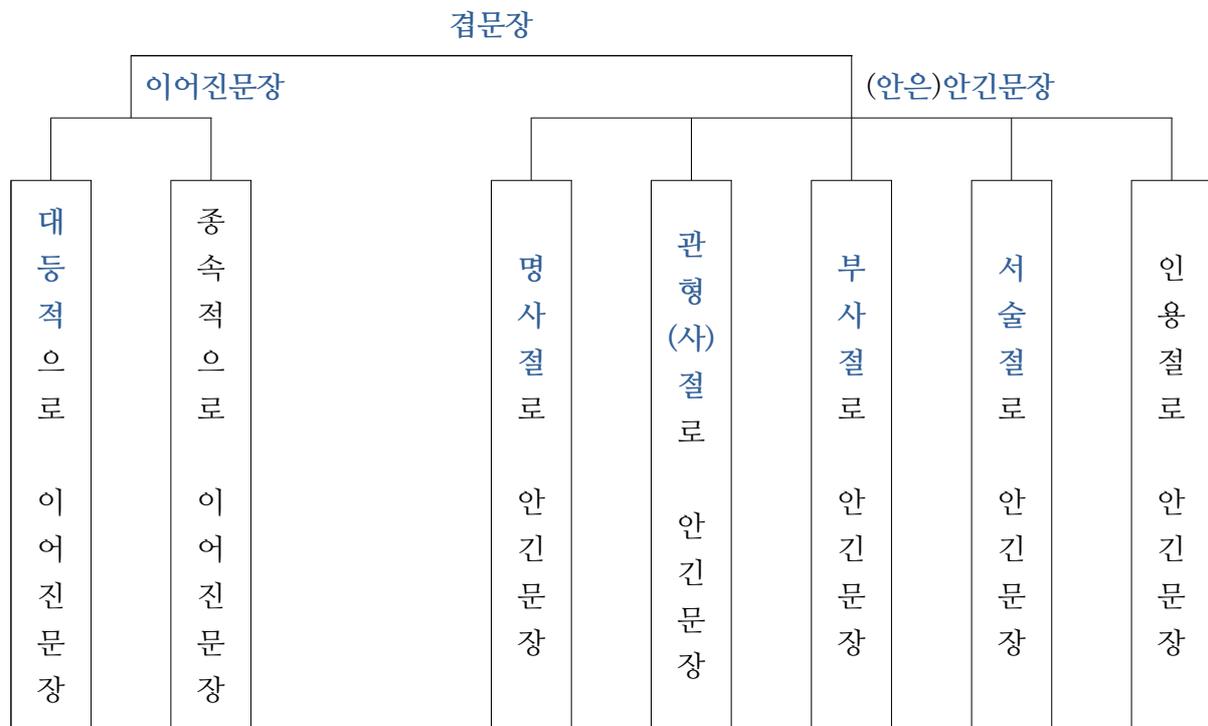
독립어는 다른 문장성분과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어라고 한다. 다른 문장성분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주체나 객체도 아니다. 모든 감탄사는 기본적으로 독립어로 기능하며 체언에 호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도 독립어로 기능한다.

(감탄사) 여보세요? / 네. 중국이 세 마리 치킨입니다.

(명사+호격 조사) 문수야, 어디 가니? / 진경아, 너도 같이 가자.

3. 문장의 짜임

우리말의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지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맺어지면 겹문장이다. (겹문장을 다른 말로 복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겹문장은 문장이 포개지는 양상에 따라 안긴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실제 문장은 이어진문장 속에 안긴문장이 있기도 하고, 안긴문장 속에 안긴문장이, 그 안긴문장 속에 또 안긴문장이, 그 안긴문장 속에 이어진 문장이 있기도 하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연출한다. 다행히 지금까지 수능에서 제시한 문장은 기껏해야 두 번 정도 겹쳐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쓰는 말이나 책에 나타난 문장을 무작정 분석하려 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문장으로 인정된 평가원 기출문제의 문장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3.1 이어진문장

이어진문장이란 둘 이상의 문장이 용언의 연결어미에 의해 나란히 배열되어 더 큰 문장이 된 것을 말한다. 이어진문장은 연결어미의 의미적 차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3.1.1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대등절)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로 나열, 선택, 대조(And Or But)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로 인정한다.

(나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른다. (결합 예: 눈이 온다 + 바람이 분다)

(나열) 그는 밥을 먹으며 TV를 본다. (결합 예: 그는 밥을 먹는다 + 그는 TV를 본다)

(선택) 그곳에서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거나 노래를 하죠.

(선택) 이번에 휴가를 나가면 KFC를 먹든지 버거킹을 먹든지 할 것이다.

(대조) 그의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조) 나는 서울로 갔으나 그는 부산으로 갔다.

3.1.2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종속절)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간적 선후, 조건과 가정, 이유와 원인, 의도와 목적 등으로 앞 뒤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종속적 연결어미로 본다.

(시간적 선후) 선후야, 밥 먹고(서) 학원 가라.

(조건과 가정) 해가 뜨면 세상이 밝아진다.

(이유와 원인) 비가 내려서(내리-어서) 땅이 젖었다.

(의도와 목적) 빨리 달리려고 운동화 끈을 바짝 조였다.

3.1.3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차이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대등절	비교 포인트	종속절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른다.		비가 내려서 땅이 젖었다.
음악이 흐르고 비가 내린다. (가능)	도치 가능성	땅이 젖어서 비가 내린다. (어색)
음악이 비가 내리고 흐른다. (어색)	내포 가능성	땅이 비가 내려서 젖었다. (가능)

문제는 위의 잣대가 둘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등절 중 대조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경우 내포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가 설득했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부했다. → 나는 그 제안을 그가 설득했지만 거부했다.

또 대조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경우 도치되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는 열심히 달렸지만 버스를 놓쳤다. → 버스를 놓쳤지만 그는 열심히 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어진문장은 위의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므로 학교문법에서는 대등절과 종속절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다른 문장에 내포되는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곧 안긴문장과 그 형식이 일치하게 되는 것인데, 학교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로 안긴문장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나 부사절로 안긴문장을 두고, 그것이 이어진문장인지 안긴문장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3.2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어떤 문장이 절로서 다른 문장에 내포되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그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전체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을 만드는 문법요소로는 전성어미와 인용 조사가 있다.

3.2.1 명사절로 안긴문장 by 명사형 전성어미

(-ㄴ)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그가 범인어-ㄴ + ___이 밝혀졌다)

(-음)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내가 그대 곁에 있-음 + ___을 기억해요.)

(-기)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비가 오-기 + 농부들이 ___을 기다린다.)

명사절로 안긴문장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 -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으)는 매개 모음이라고 하여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덧붙는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그 형태가 ‘명사 파생 접미사’와 완전히 동일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많이 얇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얇이’가 부사이므로 ‘얇’은 명사형)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떨’이 관형사형이므로 ‘슬픔’은 명사)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볶음’이 관형어이므로 ‘볶음’은 명사)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몹시’가 부사이므로 ‘기쁨’은 명사형)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큰’이 관형사절이므로 ‘묶음’은 명사)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군무를’이 목적어이므로 ‘춤’은 명사형)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이웃을’이 목적어이므로 ‘도움’은 명사형)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온전히’가 부사이므로 ‘믿음’은 명사형)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울음’은 목소리에 섞일 수 있어야 하므로 명사)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밝게’가 부사절이므로 ‘웃음’은 명사형)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그 품사가 ‘명사’가 되므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나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경우에는 아직 그 품사가 용언이므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또한 모든 용언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므로 주어나 목적어 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목적어나 주어를 취하고 있다면 용언으로 간주하면 된다.

명사절은 조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주 어) 그가 탈출했음이 분명하다. / 한글은 배우기가 쉽다.

(목적어) 나는 그가 결백함을 안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관형어)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왜냐하면 그가 도망쳤기 때문이다.

(부사어)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서술어)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3.2.2 관형(사)절로 안긴문장 by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 어제 떠난 사람이 누구지? / 나는 홀륭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은) 나를 잡은 경찰을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 이것은 맑은 물에서만 자라는 물고기다.

(-던) 강변을 달리던 소녀가 지금은 국가대표다. /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는) 그는 웃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 선생님도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ㄹ) 집에서 기다릴 아이를 생각하며 퇴근했다. /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신경 쓰지 마.

(-을)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합시다. / 저는 오늘 밥을 먹을 약속이 있어서요.

관형사절로 안긴문장은 위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실현된다. 어떤 어미를 쓰느냐에 따라 시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국인이라면 그 정도 의미 차이는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위 문장의 관형사절을 본래의 형태로 바꾸어 보면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가 된다. 수식받는 체언인 동생이 관형절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완결된 문장으로 복구해보니 주어의 일부분으로서 등장했다. 이처럼 관형절에는 생략된 문장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 ‘아이가 책을 읽었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선생님은 철수가 노래방에 다녀온 사실을 모른다.’

반면 위 문장의 관형사절은 본래의 형태로 바꾸어 봐도-‘철수가 노래방에 다녀왔다.’- 수식받는 체언인 사실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관형절의 내용이 곧 수식받는 체언과 의미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동격관형절이라 칭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관계관형절이라 함) 수능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든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는 형태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안긴문장에 생략된 성분을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하겠다.

심화

다음의 것들은 형태적으로는 관형절이나 의미적으로는 명사절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 <지구가 둥글>은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인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문장들은 일부 문법가들이 명사절로 보고 있어 수능이든 내신이든 <보기> 박스를 통한 추가 설명 없이는 출제하기 어렵다. 6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에서도 명사절로 보았다. 그러나 7차부터는 삭제된 상태이다. 문법가들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이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도자기였다.’

반면 위의 문장은 명사절로 치환되지 않는다. *‘그가 그토록 원했음은 바로 이 도자기였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관형사절로 안긴문장으로 봐야 한다.

3.2.3 부사절로 안긴문장

(-게) 아이가 신나게 뛰어간다.

(-도록)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부사절로 안긴문장은 부사형 전성어미로 실현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부사형 전성어미로는 ‘-게’가 있다. 그 외에 종속적 연결어미도 사실상 부사절을 생성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부사절은 다음과 같이 부사 파생 접미사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

(-이) 초대해놓고 반찬도 없이 밥상을 차려 정말 죄송합니다. (반찬이 없다)

(-이) 나는 너 없이 못 살겠다. (네가 없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용언이 아니라 부사로 이미 품사가 바뀐 상황에서도 심지어 주어를 취하고 서술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를테면 ‘비행기가 높이 난다.’에서 ‘높이’는 부사이자 부사어일 뿐 부사절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문장들에서 ‘없이’를 단순 부사어로 처리한다면, ‘소리도’와 ‘반찬도’와 ‘너’를 어떤 문장성분으로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게다가 문법 직관으로 보아도 이들은 ‘없이’의 주어라는 것이 명백히 느껴진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이’가 붙어 파생된 부사라고 하더라도 앞말에 대해 서술하는 성격을 지니는 경우, 부사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2.4 서술절로 안긴문장

나는 네가 좋다.

그는 마음이 아프다.

나는 고향이 그립다.

나도 웃음이 나왔다.

저 아이는 손이 참 예쁘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친구가 선물한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나는 친구가 선물한 <옷이 마음에 든다>.)

서술절로 안긴문장은 주어를 서술해주는 서술어로서 기능한다. 특이한 것은 다른 어떤 문법적 장치도 없이, 문장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서술어가 된다는 점이다. (나머지 안긴문장들은 전성어미나 조사를 이용하여 안긴문장이 된다.)

우리말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꽤 있지만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나타났는데 표면상의 서술어가 하나라면(그래서 서술절을 이중주어문장이라고도 함), 서술절이 안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술절은 특별한 문법장치가 없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시험에는 자주 출제된다. 수능과 내신을 가리지 않고, 문장의 짜임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니 철저한 학습이 요구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서술절로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나는 백두산이 보고 싶다.’

위 문장은 자칫 ‘백두산이(주어) 보고 싶다.(서술어)’가 서술절이 되는 것으로 -‘나는(주어) 백두산이 보고 싶다(서술절)’-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백두산이’는 목적어이다. ‘이/가’의 보조사적 용법을 다시 한 번 참조하라.

3.2.5 인용절로 안긴문장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있-으라㉔) 말했습니다.

인용절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할 때 쓰인다. 어떤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전달할 때에는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간접 인용의 조사 ‘고’를 쓴다.

지금까지 인용절은 문장의 짜임과 관련하여 다른 안긴문장과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 이유는 ‘라고’와 ‘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문장 전체에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므로, 관점에 따라 인용절이 부사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 수능에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차이점, 인용절과 형태가 유사하나 일반 문장인 경우를 탐구하고 판단하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직접인용에서 간접인용으로 바뀌게 되면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위 예문의 ‘있으라’는 본디 ‘계십시오’였다. 높임 표현에서 변화가 일어났고(계시다→있다), 어미도 바뀌었다.(-십시오→-으라) 그런데 ‘-십시오’는 하십시오체에서의 명령형 어미인데, ‘-으라’⁵⁵⁾는 무슨 체인가? 이것이 바로 간접인용에서의 명령형 어미 ‘-(으)라’이다. ‘먹으라고 했다.’, ‘자라고 말씀 하셨다.’, ‘숙제를 하라고 하셨다.’처럼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인용절의 표지인 ‘고’와 ‘라고’가 다른 용언과 함께 줄어들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용절도 있다.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연착하-았-다㉔ 하-ㅂ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있-다㉔ 하-ㅂ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돌아오-았-다㉔ 하-는)

‘수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없어지-ㄴ다㉔ 하-는)

그러나 위와 같이 줄어든 것을 다시 복구하면 인용조사가 드러난다. 이 인용절 뒤에 이어지는 동사 ‘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1」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가,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가 쓰인다))이르거나 말하다.
㉔ 그 책에서는 세계는 이제 정보화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했다.
경찰은 도망간 범인이 잡혔다고 하였다. / 친구가 영화 구경 가자고 했다. /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는 해 왔냐고 하셨다. / 어떤 철학자는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여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피의자는 분명히 경찰에게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2」 ((주로 ‘하는’ 꼴로 쓰이는데 ‘-고 하는’은 ‘-는’으로 줄기도 한다))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따위를 나타내는 문장의 내용을 받아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나타내는 말.
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있다. / 다음번에는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 제안이 나왔다. /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사장의 질책에 직원들은 모두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55) ‘-(으)라’는 인용절 외에도 쓰일 때가 있다. 예스럽게 말하거나(그 입 닥치라!), 책이나 신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명령할 때(정부는 원전 재가동 재검토하라!) 쓸 수 있다. 이를 ‘하라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말의 옛 모습 國語史

1. 중세국어 (10세기 ~ 16세기)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를 그 시기로 한다. 이를 다시 한글창제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적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보고 현대국어 자료와 (또는 근대국어 자료와)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드디어 훈민정음이 창제(by 세종대왕님)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참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1.1 표기상의 특징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표기상의 특징이다. 길고로 드러난, 자료에 드러난 특징이다.

1.1.1 철자법-이어적기 (연철連綴)

나
랏
말
쓰
미

지금은 가로쓰기를 하지만 중세에는 세로쓰기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적기(연철)은 매우 편리하고도 합리적인 쓰기 방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종성과 초성은 모두 자음이 올 수 있는 자리로, 뒷말의 초성 자리가 비게 되면 앞말의 종성이 연이어 발음된다. 이렇게 되면 종성의 자음을 그대로 내려 써 다음 자의 초성이 되게끔 하면 논리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매우 쉽고 간편히 쓸 수 있는 것이다(백성을 항상 먼저 고려해주신 세종대왕님!). 그리하여 위와 같이 ‘말씀+이’를 ‘말쓰미’로 표기하는 연철(이어적기)이 쓰였다. 물론 늘 연철하여 표기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해설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이는 또한 표음주의表音主義적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형태소 하나하나를 밝혀 적는 오늘날의 표의주의와 달리 말하는 대로 적게끔 한 방식이다. 이는 뒤에 이어질 8종성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1.1.2 8종성 체계

文
문
字
종
와
로
서
르
스
뫼
디
아
니
흐
썩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썼다. 그리하여 받침에는 실제로 종성에서 소리 날 수 있었던 8개의 자음이 표기되었다. 이 8종성은 현대국어의 7종성에 ‘ㅅ’이 더해진 것이다.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에는 ‘ㅅ’과 ‘ㄷ’이 종성에서 구별되었다고 봐야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ㅅ’과 ‘ㄷ’을 가려 썼다는 것은 실제로 소리가 달랐다는 뜻이고, 이는 종성에서의 ‘ㅅ’ 발음이 현대와 달랐을 것임을 추측하게끔 한다.

1.1.3 ‘ㅅ’의 표기

아바~~ㅅ~~뒤 (아버님의 뒤)

魯~~ㅅ~~사람 (노나라의 사람)

ㅁ~~ㅅ~~ㅁ장 - ㅁ슴~~ㅅ~~장 (마음의 끝)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은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ㅅ’이나 사이시옷과 의미적으로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침이 없을 때만 표기하지만 중세국어에서 ‘ㅅ’은 받침이 있을 때에도 그 옆에 나란히 쓰거나, 다음 초성자리로 옮겨 적히기도 한다.

위 예문에서 ‘아바~~ㅅ~~뒤’은 받침 ‘ㅁ’이 있어 현대국어라면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 못한다. 그러나 중세에는 ‘ㅁ’과 같이 적을 수 있었다. 또한 ‘ㅁ~~ㅅ~~ㅁ장’을 ‘ㅁ슴~~ㅅ~~장’으로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ㅅ의 위치가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4 한자어의 음표기

世~~ㅅ~~宗~~ㅅ~~宗~~ㅅ~~御~~ㅅ~~御~~ㅅ~~製~~ㅅ~~製~~ㅅ~~訓~~ㅅ~~訓~~ㅅ~~民~~ㅅ~~民~~ㅅ~~正~~ㅅ~~正~~ㅅ~~音~~ㅅ~~音

중세의 한자 표기를 보면 현대와 달리 받침이 모조리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는 하나 하나가 모두 제 뜻을 지닌 완전한 글자이므로 종성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음가가 없는 ‘ㅇ’으로 메워둔 것이다. 자세히 보면 ‘중’이라고 할 때에는 음가가 있는 옛이음-‘ㅇ’을 썼지만 ‘성’이라고 할 때는 꼭지가 없는 ‘ㅇ’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는 후기로 가면서 폐지된다.

1.2 음운상의 특징

중세국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1.2.1 어두자음군⁵⁶⁾

ㅁ~~ㅅ~~춤내 제 ~~ㅅ~~ㅅ들 시러~~ㅅ~~피디 ~~ㅅ~~ㅅ물~~ㅅ~~ 노미 하나~~ㅅ~~라.

현대국어의 초성과 종성에서는 각각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가 바로 어두자음군이다. 어두자음군은 초성에 ㅅ(>ㅅ), ㅅ(>ㅅ), ㅅ(>ㅅ)와 같이 ㅅ과 ㅅ, ㅅ을 나란히 써 나타낸다. 이를 합용병서(합하여 나란히 씀)라고 한다.

이들의 존재가 화석처럼 남아 있는 합성어가 간간히 존재하는데 햅쌀(해+쌀), 줍쌀(조+쌀), 입때(이+때)와 같이 받침에 ㅅ이 덧붙는 합성어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중세 시기에 합성이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남아 전해지는 것들이다.

1.2.2 된소리

다~~ㅅ~~ㅅ ~~ㅅ~~ㅅ을 困~~ㅅ~~야 (다섯 꿈을 인하여)

중세국어의 된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표기되었다. 한 가지는 각자병서로 표기된 ㅅ, ㅅ, ㅅ, ㅅ, ㅅ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합용병서로 표기된 ‘ㅅ, ㅅ, ㅅ, ㅅ’이다. 따라서 합용병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한 가지는 1.2.1에서 언급한 어두자음군을 나타내는 ‘ㅅ-계 합용병서’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ㅅ-계 합용병서’이다.

56) 어두=말머리(초성), 자음군=자음의 무리

1.2.3 구개음의 부재

겨턱로 디나가니 (겉으로 진나가니)

중세국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이라 하여 5개의 조음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현대국어의 자음체계에 대응시켜 보면 아음-연구개음, 설음-치조음, 순음-양순음, 후음-후음으로 대응하는데 치음은 마땅히 대응하는 음이 없다. 중세국어의 치음에 속했던 자음은 ㅅ, ㅆ, ㅈ, ㅊ, ㅍ으로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두 치조음이나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즉,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로 없는 치음이 있었던 대신 구개음은 없었던 것이다.

1.2.4 반치음과 순경음

아스(아우) 글밭(글월)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로 없는 자음이 있다. 먼저 Δ(반치음)은 ㅅ의 유성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후대에는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매우 빈번히 나타났다. 다음으로 순경음 계열인데 말뜻을 풀어보면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부~’하고 소리 낼 때와 유사한 소리로 알려져 있다. 체계상으로는 ㅁ, ㅂ, ㅍ 네 가지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ㅂ(순경음ㅂ)만이 주로 쓰였다.

1.2.5 7개의 단모음 체계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이다. 반면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7개이다. 현대국어의 ㅑ, ㅕ, ㅛ, ㅜ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단모음에서 제외되고, 현대국어로 없는 단모음인 아래아 ‘·’가 단모음 체계에 추가되어 총 7개의 단모음을 갖게 된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다양한 이중모음이 존재하였으며 현대국어로 없는 삼중모음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대大’라고 적으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를 [tay]라고 발음했다. ‘애애’라고 적으면 [ay]라고 읽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오늘날까지 ‘애애’를 [ay]라고 읽는데, ㅑ가 근대국어에서 단모음으로 바뀌면서 우리만 ‘애애’를 단모음[ɛ]로 발음하게 되었다.

한편 ‘왜’는 중세국어 시기에 [way]로 읽어 삼중모음이 된다. 발음에 반모음 w와 y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웨’도 [wɛy]가 되어 삼중모음이 된다.

1.3 문법상의 특징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은 조사와 어미의 사용에서 주로 나타난다.

1.3.1 주격 조사 - 이, ㅣ(y), ∅

중세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 사례	앞말의 환경		조사의 형태
① 말쌈미 (말쌈+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		이
② 부테 (부터+ㅣ)	모음으로	ㅣ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말	ㅣ
③ 불휘 (불휘+∅)	끝나는 말	ㅣ모음을 비롯한 ㅣ로 끝나는 말	∅

①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말쌈’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고 있다. 이를 연철하여 ‘말쌈미’가 된 것이다. ②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부터’ 뒤에 주격조사 ‘ㅣ’가 결합하고 있다. 이때의 주격 조사 ‘ㅣ’는 반모음y로서 ㅑ뒤에 붙어 삼중모음을 형성한다. ㅑ(ya) + ㅣ(y) = ㅑ(yay)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내 ㅍ 말쌈 듣좁고사(내가 왕의 말쌈을 듣고서야)’에서 ‘내’는 1인칭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ㅣ(y)’가 결합하여 ‘내(nay)’가 되어 이중모음을 형성

하고 있다. 한편 ③의 ‘불휘’는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꺠’로 끝났는데, 중세국어 시기의 ‘꺠’와 ‘꺠’는 각각 ‘oy’와 ‘uy’로서 모두 y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 이렇게 y로 끝나는 이중모음들은 뒤에 나타나는 주격 조사와 음운이 중복됨으로써 뒤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된다. 근대국어였다면 주격 조사 ‘가’가 있으므로 ‘불휘가’라고 표기하겠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ㅣ’ 계열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드리 업건 마른’의 ‘드리’도 현대국어로 해석하자면 ‘다리가’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또한 끝음절의 모음이 ‘ㅣ’로 끝났기 때문이다.

1.3.2 모음조화에 따른 조사의 이형태

을/을, 툔/를, 익/의, 은/은, 논/는, 으로/으로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을’ 또는 ‘를’이 결합한다. 이를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배웠다. 중세국어에서는 여기에 더해 모음의 양성, 음성에 따라 한 번 더 분화된다. 양성모음으로 끝난 단어 뒤에는 ‘을’이 음성모음으로 끝난 단어에는 ‘을’이 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水’은 음성모음을 지녔으므로 목적격 조사를 결합하면 ‘믈를(물+을)’이 된다. 반면 ‘말馬’은 양성모음을 지녔으므로 목적격 조사를 결합하면 ‘말를(말+을)’이 된다. 이러한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가 중세국어에는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1.3.3 관형격 조사 ㅅ

책상의 다리나 사람의 다리나 우리는 모두 관형격 조사로 ‘의’를 사용한다.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에는 무정물과 유정물을 구분하여 관형격 조사를 사용하였다.

‘나뭇(나모+ㅅ) 불휘’ (나무의 뿌리)

‘거부빅(거북+의) 털’ (거북이의 털)

위와 같이 동물 등 유정물에는 ‘익/의’를 사용하고 나무와 같은 식물 및 무정물에는 ‘ㅅ’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가끔 유정물에도 ‘ㅅ’을 쓸 때가 있다. ‘부텃(부텃+ㅅ) 모미’의 경우 부처가 유정물임에도 불구하고 ‘ㅅ’을 쓰고 있는데 이는 부처가 고귀한 존재이므로 존대의 의미에서 ‘ㅅ’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ㅅ’은 무정물 또는 높임의 유정물에 붙어 관형격을 표시하였다.

1.3.4 의문 보조사 가(아)/고(오)

‘이 쓰리 너희 종간’ (이 여아가 너의 종인가?)

‘이는 賞가 罪안’ (이는 상인가 죄인가?)

‘얻는 藥이 므스것고’ (얻는 약이 무엇인가?)

‘그디 子息 업더니 무슨 罪오’ (그대는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현대국어에는 의문 보조사가 없다. 의문형 어미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위와 같이 체언 뒤에 의문 보조사 ‘가(아)/고(오)’를 결합하여 의문문을 형성하였다. 이때의 ‘가/고’는 의문문의 내용에 따라 선택되는데, 판정 의문문의 경우 ‘가’가 결합하였고 설명 의문문의 경우 ‘고’가 결합하였다. 이는 현대국어에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1.3.5 의문형 종결어미 -녀/-뇨

‘저르며 늘구미 잇느^녀’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므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이르느냐?)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는 점은 현대국어와 같다. 그러나 이것이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이나에 따라 별도의 어미를 취한다는 것은 중세국어만의 특징이다.

1.3.6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須達이 世尊 뵈^습고져 너겨’ (수달이 세존을 뵈고자 여겨)

‘阿難 羅雲이 부텃기 갓갑스와(갓갑-^습-아)’ (아난과 나운이 부처께 가까워)

‘우리 다 佛子 | 곧즈오니(간-^습-오-니)’ (우리가 다 불자와 같으니)

중세국어에서는 부사어나 목적어에 존대의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서술어에 객체 존대의 선어말어미를 쓸 수 있었다.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존대를 특수 용언과 부사격 조사로만 실현할 수 있다. 이 객체 존대의 선어말 어미는 앞말(어간)과 뒷말(어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므로, 다양한 형태를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다.

습	넙습고 (넙-습-고) ㉠입고	습	뚝스 븅 (뚝-습-으) ㉠도와
줍	든줍게 (든-줍-게) ㉠듣게	줍	얻즈 븅 (얻-줍-으) ㉠얻어
습	아습게 (알-습-게) ㉠알게	습	안스 븅 (안-습-으) ㉠안아

습과 줍과 습이 분포하는 환경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시되는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를 비교하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1.3.7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흐느니^{이다}’(합니다) ‘흐느니^{잇가}’(합니까?)

현대국어에서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에 의해 다양하게 실현된다. 그런데 중세에는 선어말어미로도 상대 높임을 실현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경상방언에 이것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에서의 ‘-이-’가 바로 그것이다.

1.4 어휘상의 특징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 없는 특이한 어휘가 많다.

1.4.1 ㅎ중성 체언

넷물(㉠넷물), 내 천川 / 내히(내^ㅎ+이) 이러(㉠넷물을 이루어), 내과(내^ㅎ+과)(㉠넷물과)
 갈 쓰기(㉠갈 쓰기) / 갈히(갈^ㅎ+이)(㉠갈이), 갈 흘(갈^ㅎ+을)(㉠갈을), 갈과(갈^ㅎ+과)(㉠갈과)

중세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ㅎ중성 체언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ㅎ으로 끝나는 말은 어간이 아닌 이상(하양-, 빨강-) 존재하지 않는다. (히읇 제외 : 히읇도 사실 발음을 해보면 [히으시] 되어 실제 받침은 ㅎ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중세에는 이러한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약 8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외울 수는 없고, 조사와 결합한 형태를 보아 ① 격조사 자리에 ㅎ이 덧붙거나(히, 흘) ② 거센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과) 앞말이 ㅎ중성 체언인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1.4.2 형태가 변화하는 체언 (ㄱ곡용 체언)

현대국어에서 체언은 불변어에 속한다. 그러나 중세에는 다음과 같이 뒤에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체언이 있었다.

나모(㉠나무)	나모와(㉠나무와) 나못(㉠나무의)	남기(㉠나무가) 남근(㉠나무는)
구무(㉠구멍)	구무마다(㉠구멍마다) 나못 구무	굶기(㉠구멍이) 굶글(㉠구멍을)
녀느(㉠다른 이)	녀느 아니라(㉠다른 이 아니라)	년기(㉠다른 사람이)

이들을 종합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제외) 앞에서는 체언 끝의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이거나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끝의 모음을 지닌 채로 나타난다.

심화

2. 근대국어 (17세기 ~ 19세기)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국어를 지칭한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변화해가는 과도기로서 중세국어와는 다른, 현대국어와도 다른 여러 특징들이 나타난다.

2.1 표기상의 변화

2.1.1 ㅇ(옛 이응) 소실

바울(㉠방울) > 방울 [paŋol]

ㅇ-‘옛이응’은 소리값을 가진 이응으로서 현대국어에는 받침에 적히는 이응을 말한다. 중세에는 옛이응과 소리값이 없는 ㅁ을 철저히 구분해 사용하였다. 그래서 위의 ‘바울’처럼 초성에 자음이 없는 경우 종성의 ㅁ을 초성 자리에 이어적어도 음운 표기상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근대국어에 이르며 옛이응은 소실되고, 소리값이 있든 없든 현대국어와 같이 모두 ㅁ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성에 쓰인 ㅁ은 소리값이 있는 것으로, 초성에 쓰인 ㅁ은 소리값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근대국어 사례인 ‘방울’처럼 표기하게 되었다.

2.1.2 7종성 체계

밋어(㉠민어)

근대국어는 중세국어의 8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에서 ‘ㄷ’이 빠진 7종성 체계를 지니게 된다. 이는 현대국어의 7종성 체계와 유사하지만 현대국어와 달리 ‘ㄷ’대신 ‘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도 종성의 발음은 ‘ㄷ’으로 되었겠지만 여타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종성에는 ‘ㅅ’이 표기되었었다.

2.1.3 거듭적기(중철)

중세국어 시기에 이어적기가 시행되었다면 근대국어 시기에는 거듭적기가 나타난다. 거듭적기란 받침의 자음을 다음 음절의 초성에 한 번 더 표기하는 것으로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기이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여타 심리적 원인으로 종성과 초성에 자음을 거듭 표기하는 거듭적기가 자주 나타났다.

(중세) 니믈

(근대) 님믈

(현대) 님을

2.2 음운상의 변화

2.2.1 ㅅ의 소실

ㅅ슴 > 마슴 처ㅅ슴 > 처음 짓다 > 짓다

‘ㅅ-받치음’은 근대국어에 이르면서 소실되고 ㅁ(모음 앞) 또는 ㅅ(자음 앞)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어간이 ‘ㅅ-’이었던 경우, ‘ㅅ-다, ㅅ-고, ㅅ-어, ㅅ-으면’과 같이 어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2.2.2 병의 소실

셔블 > 서울 더벼 > 더워 쉬븐 > 쉬운

‘병-순경음 비읍’은 사실 15세기(중세국어시기) 중반부터 조금씩 ㅂ(자음 앞) 또는 반모음(모음 앞)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다 근대국어에 이르면서 병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ㅂ불규칙 용언들이 나타나게 된다.

2.2.3 어두자음군의 소실

빼 > 썰 뜯 > 뜯

중세국어 시기에 어두자음군으로서 등장했던 ㅂ계 합용병서들이 근대국어 시기에는 ㅅ계 합용병서로 바뀌어 표기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어져 현대국어에는 더 이상 어두자음군을 찾아볼 수 없다.

2.2.4 구개음화의 발생

도훤 > 죠훤 디나가는 > 지나가는

ㅅ과 ㅊ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ㅅ과 함께 모두 치음이었다. 그러다 ㅅ과 ㅊ이 구개음으로 조음위치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는데(남쪽 지방에서부터 시작!), 이로 인해 ㅣ모음(i)이나 반모음 ㅟ(y) 앞에 나타난 ㄷ과 ㅌ이 ㅅ과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도 새로이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구개음화 현상과 달리 형태소 경계라든지 그런 부차적 조건 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18세기부터는 디, 티 음절이 모두 지, 치로 나타난다.

2.2.5 두음법칙

넘금 > 임금 니르다 > 이르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ㄴ계열 모음 앞에서 ㄴ이 발음되지 못하고 ㅇ으로 나타난다.

2.2.6 거센소리화

갈 > 칼 고키리 > 코키리

경상방언 칼치는 표준어로 갈치이다. 칼처럼 생겨서 칼치가 더 맞는 말일 것도 같은데 서울 말은 왜 ‘갈’치일까? 이 ‘갈’은 ‘칼’의 옛말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도 선조들이 ‘갈’처럼 생긴 생선을 맛있게 드시다보니 합성어 ‘갈치’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살아있는 화석처럼 지금까지 남아 내려오는 것이다. 이러한 거센소리화는 강한 어감을 살리기 위한 언중들의 심리적 동기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2.7 원순 모음화

믈 > 물 블 > 불 플 > 풀

근대국어 시기에는 양순음 아래 오는 ㅡ모음이 양순음이 가진 원순성에 영향을 받아 원순모음 ㅜ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2.2.8 움라우트 현상 (by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꺀, 꺆, 꺏, 꺑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이었다가 근대국어 시기에는 단모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근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일어나는 현상이 움라우트 현상이다. 흔히 ‘ㅣ모음 역행동화’로 알려져 있는 움라우트 현상은 호랑이가 ‘호랭이’로, 손잡이가 ‘손잡이’로 발음되

는 것으로 대부분이 비표준어로 처리된다. 이러한 현상의 대전제는 ‘호랭이’와 ‘손잡이’의 ㅈ가 전설 단모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ㅈ와 ㅉ가 모두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 ‘너기-다’가 ‘네기-다’로 움라우트되고 ‘주기-다’가 ‘쥐기-다’로 움라우트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는 ㅈ, ㅉ, ㅊ, ㅊ이 단모음화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2.2.9 ‘·(아래아)’의 소실

ㅁㄹ치다 > ㅁ르치다 > 가르치다

아래아는 두 번의 시기에 걸쳐 소실된다. 첫 번째 시기에는 2음절 이하에서 —로 교체되었다. 두 번째 시기에는 1음절에서 ㅁ로 교체되었다.

2.3 문법상의 변화

2.3.1 주격 조사 ‘가’의 등장

‘두드리기가 불의에 도다 오르니’

드디어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가’가 쓰이기 시작한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어에서 들어왔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가’의 용례가 이미 임진왜란 이전의 문헌에서도 간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어 시기부터이다.

2.3.2 ‘-습-’의 객체높임 기능 소실

‘본디 먹디 못흐 습것마는 다 먹습노이다’ (본디 먹지 못하옵시다만 다 먹습니다)

‘-습-’은 중세국어 시기에 목적어나 부사어에 위치한 사람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했으나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이 기능을 상실하고 상대높임의 기능으로 변화하게 된다.

2.3.3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앗/엇-’의 확립

‘긋그적씩 앓노라(오-앗-노-라)’ (그꼬저께 앓노라)

중세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었다. 그나마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를 활용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을 나타낼 수는 있었다.

어문규범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출제한 바가 없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 로마자 표기법이 출제된 적이 있다. 그것도 규정을 몰라도 상관없을 만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규범에 대해 한번 훑어보는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국어처럼 흔히 쓰일 때 이를 적절히 표기하기 위한 규범이다. ‘돈까쓰’와 ‘돈까스’와 ‘돈가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지, ‘프렌치 프라이’와 ‘후렌치 후라이’ 중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지 알려주는 규범인 것이다.

1.1 주요 규정 요약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 사용하여 적는다.

(해설)→ f를 표기하기 위해 ฟ(순경음표)까지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해설)→ f는 피오로만 써야 한다는 것이다. foil을 호일이라고 했다가, france는 프랑스라고 하면 안 되니 한 음운으로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해설)→ 로켓(X), 슈퍼마켓(X) 받침에는 슴을 쓰는 것이 맞다. 주격 조사를 붙여 발음해보면 왜 슴을 받침으로 쓰는지 알 수 있다. ex. 나의 Pet이-나의 펫이[페시]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pipe는 파이프(X), bus도 뻬쓰(X), gas도 까쓰(X). 파이프, 버스, 가스로 써야한다. 그래서 Pork Cutlet은 ‘돈가스’가 맞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해설)→ camera는 원칙적으로 표기하면 ‘캐머러’가 맞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카메라’로 표기해온 전통을 존중하여 ‘카메라’가 규범에 맞는 표기가 된다. set도 원칙적으로는 ‘셋’이 맞으나 ‘세트’로 표기된다.

<참고 문헌>

이 책의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국립국어원, 온라인-『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남광우, 『고어사전』, 교학사, 2013
이삼형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15
이삼형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15
이진호,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2016
배주채,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2012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박이정, 2017
이관규, 『학교문법론』, 월인, 2010
임지룡 외,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010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11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 휴먼컬처아리랑, 2019
이도영 외, 『2019학년도 수능대비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EBS출판, 2018

이 책은 현대청운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도 이 책의 형식과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Copyright 2018. 박지성. All rights reserved. -

<수정 이력 및 교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

파란문법 수정노트 v3.7

- 8쪽 비음화 사례 오류 수정 - 수정 제안 15기 서O경
(수정 전) 끝말잇기 [끈마릴끼]
(수정 후) **끝말 [끈말]** (참고로 기존 사례 /끝말잇기/의 표준발음은 ㄴ 첨가로 인한 [끈말릴끼])

파란문법 수정노트 v3.6

- 4쪽 음운의 정의 심화 설명 보완
- 6쪽 표준발음 오류 수정
(수정 전) [만깎스럽다]
(수정 후) [만깎스럽**따**]
- 19쪽 자음군 단순화 관련 표준발음법 심화 설명 추가 (여덟도[여덨도], 여덨과[여덨과])
- 28쪽 거센소리되기 사례 및 음운 변동 과정 설명 추가 (닭하고[다카고])

파란문법 수정노트 v3.5

- 주요 개념어 **색 입힘** 처리
- 9쪽 (유음의) 비음화 개념 설명 보완
- 50쪽 주체높임 실현 특수용언 예시 오류 수정
(수정 전) 모시다
(수정 후) **주무시다, 들다**
- 51쪽 주어 사례 오류 수정
(수정 전) (명사절+보조사) 그가 몰래 편의점을 다니고 있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수정 후) (명사절+보조사) 그가 몰래 편의점을 다니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다.
- 64~66쪽 중세국어 설명내용 글씨 크기 교정
- 73쪽 수정노트 첨부

파란문법 수정노트 v3.4

- 7쪽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표준발음법
(추가) 받침 ㅎ의 발음과 관련한 설명
- 10쪽 제18항 표준발음 사례 - 수정 제안: 15기 히O완
(수정 전) 옷 맞추다[온마추다]
(수정 후) 옷 맞추다[온**만**추다]

파란문법 수정노트 v3.3

- 1쪽 음운音韻의 정의
(추가) 음운의 정의와 예시에 대한 각주
- 7쪽 제9항 표준발음 사례 - 수정 제안: 15기 송O나
(수정 전) 옷다[옷 : 따]
(수정 후) 옷다[**운** : 따]
- 16쪽 제24항 표준발음 사례 - 수정 제안: 15기 히O완
(수정 전) 젊지[점 : 지]
(수정 후) 젊지[점 : **찌**]
- 29쪽 모음축약 - 수정 제안: 15기 송O나
(수정) 모음 축약에 대한 설명 일부 수정

파란문법 수정노트 v3.2

- 49쪽 시제와 동작상 - 수정 제안: 14기 진O정
(수정 전) 또한 전성어미 '-은'이 동사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수정 후) 또한 전성어미 '-은'이 동사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